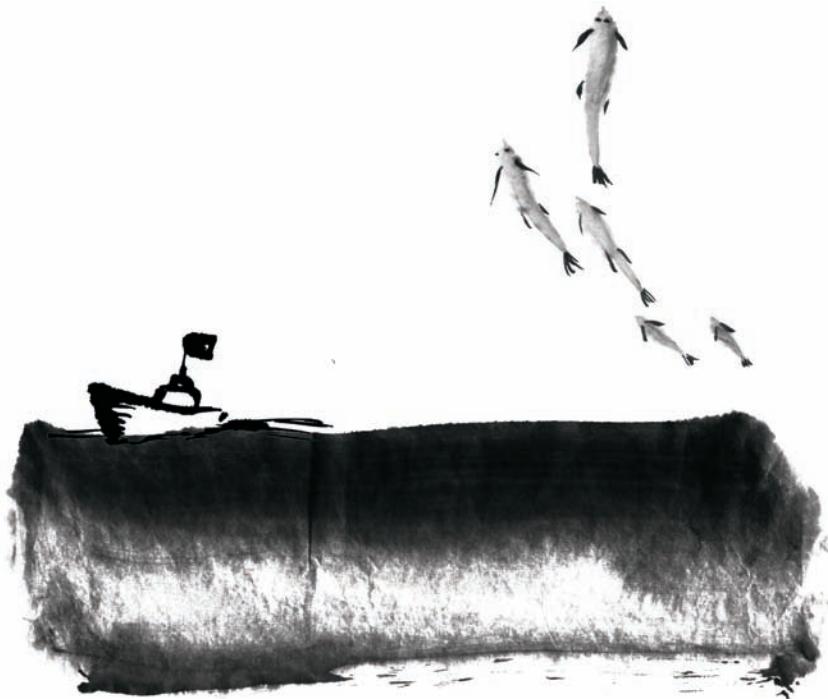


안녕하세요? 유정충 선장님!

유정충 선장과 만난 6개월의 기록



2012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결과자료집

안녕하세요? 유정충 선장님!



속초 출신의 고 유정충 선장은 1990년 3월 1일 제주도 서남방 370마일 해역에서 어로 작업 중 갑자기 밀어닥친 돌풍에 휘말려 배가 침몰할 위기를 당하자 선원 21명을 탈출시키고 홀로 배에 남아 '602 하나호 침몰 중' 을 반복하다 어선과 함께 수장 됐다. 고 유 선장의 장례식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 어민장으로 치러졌으며, 이듬해 1월 9일에는 고 유정충 하나호 선장 기념 사업추진회가 추모 동상을 건립했다.

안녕하세요? 유정호 선장님!

발 행 인 노광복

발 행 일 2012. 12. 31

발 행 처 속초문화원

홈 페 이 지 www.sokcho-culture.com

전 화 033-632-1231

기 획·제 작 속초문화원 사무국

구 성·편 집 김인섭, 이정무, 김은중

디자인·인쇄 디자인씽 속초지사

안녕하세요? 유정충 선장님!

유정충 선장과 만난 6개월의 기록



발간사



올해 처음 시작한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의 결과를 마무리하는 <안녕하세요, 유정충 선장님>을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속초문화원의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지역의 잊혀진 영웅, 고 유정충 선장의 이야기를 발굴하여 지역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업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학생들의 문화감수성을 끌어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교육 강사들이 협업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속초문화원이 진행하는 모든 문화예술활동에 새로운 상상력을 부여하였고, 그것은 다시 지역사회의 문화예술환경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교육프로그램의 강사와 향유기관 실무자, 속초문화원이 함께 이루어낸 것으로 그간의 노고와 수고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면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커져갑니다. 과거에는 특정 영역의 기술을 학습하는 학원식 수업이 문화예술교육의 전부인양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창의성과 주체성을 세울 수 있는 교육으로 변화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올해 확인했습니다.

속초문화원은 앞으로 지역과 지역민이 문화예술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초문화원장 노 광 복

CONTENTS

I. 사업개요	006
II. 교육프로그램	014
· 그림자극 프로젝트 ‘바다와 사람’	016
사진으로 보는 교육프로그램	018
모니터링	022
소감문	042
· 문화예술로 만나는 유정충 선장	044
사진으로 보는 교육프로그램	046
모니터링	050
소감문	074
· 뮤지컬로 만드는 ‘유정충과 바다’	078
사진으로 보는 교육프로그램	080
모니터링	084
소감문	112
III. 기획워크숍	114
IV. 결과발표회	122

사업개요



2012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추진배경

● ‘고 유정충선장’ 의 이야기를 다양한 예술로 만난다

2011년도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지역의 영웅이지만 이제는 잊혀져가는 인물인 ‘고 유정충선장’의 이야기를 발굴하여 ‘난타’로 만든 프로그램을 진행한바 있음. 올해는 이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하고 보완함. 유정충 선장의 삶을 통해 희생정신과 어민의 삶, 바다와 해양문화, 지역 어로문화 등을 배운 후 각각의 향유기관에서 스토리텔링을 통한 그림자극과 뮤지컬, 공공미술, 생태교육의 형태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유정충 선장 문화제’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와 그 의미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학생들이 직접 문화제를 만들어 보자

지역인물의 이야기를 발굴하여 문화예술교육으로 학습자와 만나고 그 결과물인 ‘유정충 문화제’를 지역과 공유한다. 중요한 것은 이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리더가 되어 작지만 강한 ‘문화제’를 만들어 보는 것.

● 향유기관의 네트워크와 문화예술교육 사각지대의 보완

운영이 어려운 아동센터의 문화예술교육을 폭넓게 지원하고, ‘지역 인물’을 다양한 문화예술로 만날 수 있도록 예술단체 및 시민예술가와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의 가능성을 타진함.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을 개발하기 위한 예술강사 및 예술단체, 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2. 사업목표

● 지역을 배우고 참여의 기쁨을 만날 수 있는 교육

아동센터 학생들이 지역인물을 통해 공동체에 대해 이해하고, 문학과 뮤지컬, 미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발표회를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참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 교육프로그램 결과물을 활용한 지역사회 연계활동

발표회의 성격을 띠는 ‘유정충 문화제’는 교육생뿐만 아니라 지역의 예술가와 문화단체가 함께 준비하여 그 효과를 높이고 문화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다.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지역문화콘텐츠의 개발과 활용사례 제시

사업진행을 위한 모니터링,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개발 등의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강화를 할 수 있다.

3. 교육 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 그림자극 프로젝트 ‘바다와 사람’

교육목표 : 지역 인물의 삶을 재조명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 인물의 삶과 연결된 다양한 환경을 그림자극으로 표현함으로써 획일화된 아동들의 정서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음.

교육장르 : 문학 / 미술 / 음악 / 그림자극

교육강사 : 연간계약강사 김효린, 주강사 – 이혜경(음악), 보조강사 – 김명희, 이희진, 김정민, 문화자원봉사자

학습대상 : 지역아동센터 행복한홈스쿨

교육기간 : 2012. 8 ~ 12

교육장소 : 지역아동센터 행복한홈스쿨, 속초중앙시장 일원

- 프로그램명 : 문화예술로 만나는 유정충 선장

교육목표 : 지역의 소영웅이지만 지금은 잊혀져 가는 고유정충 선장의 이야기를 통해 희생정신과 어업문화를 이해하고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

교육장르 : 통합(스토리텔링, P.I.E, 미술 등)

교육강사 : 주강사 최종현, 이동수, 보조강사 오성란, 이희진

학습대상 : 속초시 위스타트

교육기간 : 2012. 8 ~ 12

교육장소 : 위스타트 회의실

세부교육 : 구성 내용

● 프로그램명 : 뮤지컬로 만드는 ‘유정충과 바다’

교육목표 : 뮤지컬이라는 통합장르 예술교육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예술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성발달에 도움을 준다.

교육장르 : 총체극(연극, 음악, 국악)

교육강사 : 연극 · 국악 - 김청익 / 음악 주강사 - 김민정
보조강사 - 유지현, 김정민

학습대상 : 속초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교육기간 : 2012. 8 ~ 12

교육장소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실

● 유정충문화제 기획워크숍

일 시 : 2012년 11월 10~11일(1박 2일)

장 소 : 실향민문화촌

참여대상 : 향유기관 교육생 중 유정충 문화제 기획단 30명

진행내용 : ① 향유기관 교육생 중 적극적 참가학생 10명을 선발하여 기획단 운영.
② 교육에 대한 이해와 학생끼리의 자율적인 문화제 기획으로 각 기관의 문화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유정충 문화제 결과발표회

일 시 : 2012년 12월 15일 오후 3시

장 소 : 두드림 소극장

참여대상 : 향유자 및 갯마당 등 지역문화예술단체

진행내용 : 각 기관에서 학습한 그림자극, 뮤지컬 등의 결과물을 지역 사회와 공유함. 특히, 학생들이 직접 홍보문구와 현수막 디자인을 만들어 참여의 의미를 알게 되는 축제로 기획.

4. 문화예술교육 강사자율연구모임

- 활동목적 : 공동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고유의 특성화프로그램 개발
- 활동기간 : 2012년 8월~12월
- 활동내용 : - 유정충문화제 만들기 교육프로그램 점검 및 보완
- 2013년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개발

구분	일정	활 동 명	세부내용	참여대상	장소
1차	8. 23	강사자율연구모임	- 사업 초반 문제점 및 보완사항 - 여름방학 프로그램 개발	기관실무자 예술강사	속초문화원
2차	9. 20	강사자율연구모임	- 사업 과정 공유 -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개발	기관실무자 예술강사	속초문화원
3차	10. 31	강사자율연구모임	- 사업 과정 공유 - 유정충문화제 기획 워크숍 회의	기관실무자 예술강사	속초문화원
4차	11. 29	강사자율연구모임	- 사업 과정 공유 - 유정충문화제 행사 진행 회의	기관실무자 예술강사	속초문화원

- 활동인원 : 기획인력 1명, 항유기관 실무자 3명, 참여강사 9명

5. 기대효과

- 향유자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새로운 결합 ‘유정충문화제 만들기’

기존의 단순한 결과발표회가 아니라 향유자가 교육의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를 직접 만들어 나가고,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유정충 문화제 만들기’는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환경을 제시할 수 있음.

- 아동센터의 문화예술교육 인식 확산과 중요성 공유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기 힘든 아동센터와의 연계교육으로 문화예술 교육의 인식을 확산하고 중요성을 공유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음.

- 유정충 선장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잊혀진 영웅 유정충 선장에 관한 교육과 결과물 발표를 통해 지역사회에 반향을 일으키고 향유자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음.

- 문화예술교육 파트너십 구축

교육의 진행과 결과를 향유자와 기관, 강사,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홍보 및 활성화에 기여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속속 들여다보기

처음으로 실시하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생소한 유정총 선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아이들은 어떤 변화
를 보여줄까요?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하여 각 프로그램마다 모니
터링 선생님을 고정 배치하였
습니다.

매 수업마다 강사 선생님과
교육 향유자의 관계를 들여
다보고, 수업의 개선점을 찾아
내며, 발전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모니터링 선생님들이 들려주는
문화예술교육 이야기.

그 속에서 우리는 지역 고유의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해답
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림자극 프로젝트 '바다와 사람'

행복한홈스쿨
아이들이 만든 그림자극

속초를 둘러싼
바다환경을 공부하고
바다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어
그림자극으로 제작했어요!





교육프로그램

교육주제	내용
스토리텔링 수업 (해양생태 이야기)	먼저 바다와 관련된 이야기-해양생태, 관련 사람들 등들을 나누며 앞으로 진행하게 될 배경을 익힘
대본을 쓰기 위한 전작업(발성연습, 이야기 꾸며보기)	그림자극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목소리다. 먼저 발성연습으로 목소리를 가다듬고, 거미와 이슬이라는 이야기를 역할에 어울리는 목소리로 읽는 연습을 한다.
대본쓰기	바다와 관련된 사람을 ‘해녀’로 결정한 후 어떤 이야기를 만들까 고민중이다.
연극에 필요한 캐릭터 그리기	그림자극에 필요한 캐릭터를 작업하는 시간이다. 아이들 각자가 맡은 역할 또는 필요한 그림을 책을 보며, 스마트폰으로 찾아보며 그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배역 정하고 연습하기	그림자극의 대본 초안이 나왔다. 초안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정하기 위해 돌아가며 다양한 역할을 맡아 대본을 읽어 본다. 그 후 가장 적합한 역을 맡아 본격적으로 연습을 시작한다.
구연 연습 (자원봉사 어르신들과 함께)	그림자극 동아리를 만들어 종종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구연연습을 한다. 각자 역할에 어울리는 목소리가 어떤 것인지 같이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고, 조언을 받기도 한다.
구연 연습	행복한 힙스쿨 친구들이 그림자극을 위한 자연스런 대사와 동작을 익히기 위해 계속 연습을 한다.
녹음 및 배경 제작	녹음실에 가서 무대에 올릴 극 전체 대사를 녹음하고 몇몇 친구들은 배경 제작을 한다.

사진으로 보는 교육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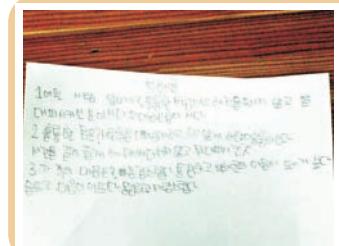
해양생태 이야기(스토리텔링 수업)



장난꾸러기 지혁이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선생님과
만나 반갑다.



자신이 생각하는 생태 변화와
어족자원에 대해 각자 나와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석해균 선장님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이다.



대본쓰기(발성연습, 이야기 꾸며 보기)



발성연습 중



거미와 이슬이란 동화를
실감나게 읽어보기



모둠짱끼리 얼마나 실감나게
읽을 수 있는지 대결이다.

铅笔 大本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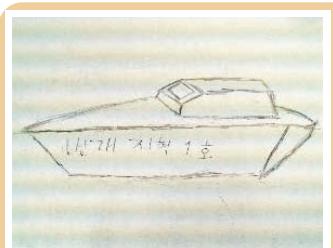


어떤 내용으로 쓸까?
없는데 모둠이 고민 중이다.

짱모둠도 고민 중

장난꾸러기 지혁이도,
광윤이도 지금만은 진지하다.

铅笔 연극에 필요한 그림 그리기



연희는 산호 그리는 것이
너무 어렵다.

준섭이도 효주도 쓱쓱!

지혁이의 번개 1호다.

사진으로 보는 교육프로그램



배역 정하고 연습 하기



배역을 정하기 위해
돌아 가며 대사 연습을
하고 있다.



광윤이는 이들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본인들이 하는 역할이
아직도 어색해 웃느라
정신들이 없다.



구연 연습(어르신 자원봉사자와 함께)



구연을 도와주실
자원봉사 어르신들이다.



목소리가 기늘어
엄마 역할에 맞는 충분한
소리가 나오지 않아
맹연습중이다.



역시 자원봉사 어르신의
목소리가 짭이다



구연연습(우리끼리 잘해요)



아들역에서 불가사리 역으로
다시 바뀐 광윤이

친구들 앞에서 열심히
구연연습을 해요,
살짝 부끄러워요.^^

이제 마지막 구연연습.
모두들 긴장하면서도 능숙해요



녹음 및 배경제작



두근 두근,
녹음을 위해 기다리는 아이들.
난생처음 보는 녹음실이
신기해요.

배경제작은 너무 어려워요.
고래를 그릴까, 상어를 그릴까.

연습, 또 연습,
녹음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아이들

그림자극 프로젝트 '바다와 사람'

행복한 홈스쿨 모니터링

중구난방 난리법석. 행복한 홈스쿨 아이들의 그림자극 만들기는 어떤 소동이 있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을 한 아이들은 극본을 만들고 역할을 정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어르신자원봉사자 분들과 함께 발성 연습도 하고, 녹음을 하면서 한편의 그림자극을 완성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답니다. 그 시간의 기록을 들여다 볼까요?

- 이 희진 -





1회차

교육목표 오리엔테이션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작년에 선생님을 만난 아이들은 아는 체를 하구요, 처음 본 아이들은 누굴까? 궁금해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누구세요? 라며 웃는 아이들도 있네요. 김효린 선생님이 본인 소개와 다른 선생님들 소개를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도 이야기를 해 주시네요. 한 분 한 분이 인사를 할 때마다 아이들이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그 다음엔 앞으로하게 될 프로그램 소개예요. 유정충 선생님을 소개하며 올 12월 문화제에 그림자인형극과 오카리나 연주를 할 거란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시끌시끌합니다. 오카리나 연주는 잘 하니까 걱정이 없을 것이 라며 자경이가 우쭐거립니다. 형보다 잘한다고 자민이는 짹꿍에게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네요. 작년에 자기에게 썼던 편지를 낭독을 해 보는 시간도 가집니다. 유민이와 수영이, 자경이가 나와 1년 전에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본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했답니다. 발표를 듣고 웃는 아이들은 올해 처음 만나는 아이들이지만, 작년에 이 편지를 써 본 아이들은 갑자기 진지해져요. 친구의 장점을 이야기 해 보는 시간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단점을 먼저 이야기해요. 유민이는 잘난 체를 많이 해요~ 지혁이는 너무 떠들어요~ 선생님께서 친구들의 장점을 먼저 이야기하라고 지도를 해주세요. 준섭이와 몇몇의 아이들은 분위기가 너무 산만하네요. 친구들까지도 정신이 없게 떠든답니다. 그래도 가족같은 분위기가 좋은 행복한 흄스쿨입니다.

 2회차

- 교육목표**
1. 바다와 관련된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2. 유정충 선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대본을 쓸 수 있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대본을 만들어 볼까요? 선생님께서 먼저 바다와 사람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PPT작업을 해 오셨어요. 다양한 배 그림과 사람 그림이네요. 그림을 보며 배 이야기도 하고, 사람에 대해 이야기도 나눕니다. 어떤 배인지는 좀 어려운가 봐요. 속초에서 보지 못하는 배도 무척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직업을 가진 사람인지는 쉬운가 보네요. 어부, 그물 깁는 사람, 선장, 선원, 생선 파는 사람 등 속초에서 대부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예요. 유정충선장님은 다들 들어보지 못했대요. 그래서 후크선장과 석해균선장에 대해 모둠을 정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준섭이가 ‘피터팬’이라고 외치며 칼을 들고 싸우는 흉내를 내 아이들이 와르르 웃음을 터뜨립니다. 모둠 이름은 ‘짱모둠’과 ‘없는데모둠’이예요. 재미있죠? 짱모둠엔 유민, 유진, 자민, 준섭, 효주, 지은이가 같이 있고요, 없는데모둠엔 수연, 지영, 국형, 지혁, 연희, 자경이 있답니다. 모둠짱 선출도 잊지 말아야겠죠? 유민이와 수연이가 모둠짱이 되었어요. 짱답게 발표도 수업에도 진지하게 집중을 한답니다. 대본을 써 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해 대본을 어떻게 썼는지 들여다봅니다. 자신들이 쓴 대본을 다시 보느라 다들 즐겁습니다. 올해 처음 만난 아이들은 자신들도 쓸 수 있을까? 고개를갸웃거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작년보다 멋진 대본이 나오겠죠?

수업단상

아이들 자신이 쓴 대본을 다시 보고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스스로 잘하고자 하는 결심을 가지게 하고, 처음으로 프로그램에 참석한 아이들에게 대본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발표를 시키면 고학년 위주로 발표를 하고, 저학년들은 조용히 있기만 한다. 저학년도 발표를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3회차

교육목표 역할에 맞게 발성이 달라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며,
연습을 할 수 있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첫 시간에 그림자 인형극을 할 거라 말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 ‘거미’와 ‘이슬’ 이란 짧은 동화를 거미와 이슬의 성격이나 대화의 내용에 맞게 읽어 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목소리를 크고 실감나게 해야겠죠? 처음에는 그냥 읽기만 합니다. 쪽스럽기도 하고, 아직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도 있겠죠? 발성연습으로 목청을 틔워줍니다. ‘아,에,이,오,우’ 를 목을 젓혀가며 음계의 높이에 따라 내어 봅니다. 사진 찍히는 것을 쪽스러워하는 자경이는 사진 찍을 때마다 얼굴을 숨기려고 하지만, 이번에 찰칵!! 장난꾸러기 지혁이는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실컷 하다가 내레이션을 하고 싶은 사람을 뽑자, ‘저요’ 하고 손을 번쩍 듭니다. 광현이는 목소리가 큽니다. 작년에는 그림자 인형극에서 사자역할을 했지만 목소리가 작았나 봐요. 오늘은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거미 역할을 읽어 아이들의 박수를 받았어요. 수연, 지혁, 국현이도 한 팀을 이뤄 실감나게 읽어 봅니다. 유민이와 지혁, 준섭이 팀이 더 잘했어요. 지혁이가 이슬이의 흉내를 너무 실감나게 냈거든요. 근데 다들 동화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 ‘사랑하는 구나’라는 말은 쪽스러운가 봐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모습이 다들 똑같아요. 연희는 작년과 다르게 글자를 다 읽을 줄 알아 동화책도 잘 읽어 선생님과 아이들의 칭찬을 다 받았답니다. 대본을 쓰고, 연습을 하면 멋진 공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무척 되는 시간이었답니다.



수업단상 읽고 연습할 동화는 미리 프린터해서 각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다면 조금 더 효과적인 수업이 되었을 것 같았다.



4회차

교육목표 해녀에 대한 이야기를 꾸밀 수 있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처음을 오카리나 연주로 시작을 합니다. 오브 더 레인보우, 창가의 이야기 등을 연주합니다. 발표회 때 연주할 곡이예요.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지만,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답니다. 연희는 밥을 늦게 먹고 들어오네요. 근데 예쁘게 인사하는 것은 잊지 않네요.^* 바다하면 캐리비언의 해적이란 영화가 생각이 난다는 지영이는 발표도 열심히!! 유민이는 해적을 본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설명이 잘 안되나 봐요. 해녀 하면 고무와 검정색이 생각이 난다는 준섭, 비구니가 생각난다는 국형. 왜 그럴까요? 지혁이는 오늘도 까불까불합니다. 결국 선생님께 퇴장 명령을 받고 밖에서 5분을 대기 하네요. 모둠끼리 모여 이야기를 만드는데 친구들의 이야기 내용이 너무 살벌해요. 교통사고, 자살 등등 해녀가 된 배경이 너무 어둡네요. 친구들 머릿속에 해녀라는 직업은 어렵고 힘든 직업인가 봐요. 밝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수업단상

해녀라는 직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너무 강했다.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긍정적 느낌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5회차

교육목표 대본을 만들기 위한 이야기를 꾸밀 수 있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오늘은 먼저 친구들이 오카리나 연습을 하고 있네요. 단체 곡을 몇 곡 연습을 했는데, 음도 박자도 제각각. 그래서 선생님이 ‘도레미파솔라시도’ 연습부터 다시 시킵니다. 단체로 불러보고 몇몇이 나와서 주거나 받거나 하며 음을 정확하게 익혀도 봅니다. 유민이가 거의 승리를 하네요. 이젠 해녀 이야기를 꾸며 볼까요? 해녀는 숨을 오래 참을 수 있어야겠죠? 10분을 참을 수 있다는 선생님의 말에 아이들이 놀랍니다. 그러면서 숨참기를 해 보네요. 준섭이와 광윤이가 몸싸움, 말싸움을 해요. 남자친구들이라 사소한 일에도 금방 티격태격! 광윤이가 밖으로 퇴출~~제일 나이가 많은 해녀가 몇 살인 줄 아나요? 무려 91세래요. 지금 울릉도에 살고 있답니다. 해녀학교가 제주도에 있다는 걸 알고는 신기해합니다. 인원이 너무 빠졌네요. 그래도 남은 친구들끼리 줄거리도 만들어 보고, 사건도 만들어 봅니다. 갈등이 있어야 해결도 있겠죠? 어떤 갈등들이 나올 지 궁금하죠? 자빈이와 지영이가 나와서 각 모둠이 만든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자빈이는 웃느라 정신이 없고, 지영이는 익살스런 목소리로 친구들을 재미있게 만듭니다. 완성된 내용은 아니지만, 재미있게 만들어 진다면 좋겠죠?





6회차

교육목표 대본을 쓰기 위한 밑작업을 할 수 있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오늘 시작은 비유를 들어보면서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고요? 사자와 늑대의 비유입니다. 사자 무리의 왕과 늑대 무리의 왕을 비교를 해 봅니다. 사자의 왕은 모든 것에 자신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늑대 무리는 다르죠. 항상 무리를 먼저 위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왜 이런 비유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두 모둠의 모둠장과 모둠원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모둠장은 모둠원들을 잘 이끌어 나가야 하는 역할이 있고, 모둠원들 또한 잘 협조를 해서 목표를 이뤄야 하는 목표가 있죠. 모둠장 혼자만 잘 한다면, 또 모둠원들이 멋대로 한다면 그 모둠이 잘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를 했나 모르겠네요. 오늘도 대본 쓰는 작업을 한답니다. 저번 주 수업에 많은 아이들이 빠지는 바람에 대본 내용이 허술했죠? 그래서 오늘은 대본을 수정을 할 거예요. 유민이는 바다 속 깊은 곳에 문어가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광윤이는 묵묵히 이야기를 만듭니다. 준성이기는 수연이를 도와 대본내용 쓰기에 열심입니다. 없는데 모둠은 사자무리에 비유를 할 수 있네요. 연희가 어리고 잘 모른다고 무시하고 따돌립니다. 지혁이는 까부는 바람에 수연이에게 머리를 한 대 쥐어 박힙니다. 제법 이야기가 탄탄해져 갑니다.



7회차

교육목표 내용의 세부적인 부분을 표현할 수 있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준섭이와 지혁이가 너무 떠들어 수업이 진행이 되지 못해 시간이 제법 지났습니다. 그래도 수업을 해야겠죠? 오늘은 내용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좀 더 보완하고, 성격이나 대사를 적어 보는 시간입니다. 친구 한 명 한 명이 대본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성격을 말해 보는 시간을 가져 봅니다. 광윤이는 오징어의 성격을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으로 만들어 봅니다. 광윤이 성격을 좀 닮은 듯해요. 자경이는 상어의 성격을 깡패라고 규정짓네요. 아무래도 상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탓이겠죠? 돌아가면서 등장인물의 대화를 만들어 보고, 그 대화가 자연스러운지 체크도 꼼꼼하게 해 봅니다. 준섭이도, 지영이도, 광윤이도 대화를 재미있게 만드느라 정신이 없네요. 수연이는 오늘도 열심히 선생님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적네요. 이야기의 뼈대가 튼튼하게 만들어 지는 듯 보여 기분이 참 좋습니다.

수업단상 한 명씩 돌아가면서 대화를 고민하고, 쓰고 하는 시간이 참 좋았다. 집중력도 생기고, 다른 친구들이 표현하는 것을 함께 하니 훨씬 수업 진행이 매끄러워짐을 느꼈다.





8회차

교육목표 주제와 내용에 맞게 대본을 쓰고,
내용에 관련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대본을 손을 보고 그림을 그려 보려고 합니다. 대본을 손 볼 친구들은 국형, 지영, 준섭, 효주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진지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무척 예쁩니다. 다른 친구들은 무얼 하고 있나 살펴볼까요? 유진이는 해녀의 모습을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있네요. 현진이가 슬쩍~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번개1호와 마을 그림은 지역이의 작품입니다. 그림을 잘 그려 친구들과 선생님께 칭찬을 들어요. 어깨가 으쓱으쓱!!! 연희는 계속 “선생님, 해파리는 어떻게 그려요? 못 그리겠어요~” 애타게 부릅니다. 그래서 바다 속 그림이 있는 책을 찾아서 보여 주고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했더니 포기하지 않고 그렸답니다. 멋지게요~~ 광윤이는 선생님이 연희만 도와준다고 투덜투덜~~ 집 그림을 알려 주었더니 이상하다며 싫다고 하면서 자를 가지고 반듯반듯한 사각형 집을 그렸답니다. 제일 큰 형인 준성이도 열심히 그리고 있네요. 할머니 목소리가 일품인 효주는 고친 대본 내용을 따박따박 읽어 봅니다. 각자의 모습들이 너무 멋져 보인 시간이었습니다.

수업단상 각자의 관심과 능력이 돋보이는 시간이었다.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역할 분담을 잘 시켜 놓았기에 수업시간이 즐거워졌다.



9회차

교육목표 배역을 정해 그에 맞게 표현할 수 있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오늘은 드디어 대본을 만들고, 배역을 정해서 실감나게 연습을 할 거예요. 유진이와 수연이, 광윤이가 줄거리 1,2를 가지고 대사를 만들고, 효린샘과 나머지 친구들이 또 함께 할 거예요. 유진팀은 대사를 금방 만들더니, 실감나게 연습도 해 보네요. 역시 스스로 하는 게 더 신이 나겠죠? 유진이는 몸짓까지 그럴싸하게 하면서 신나게 하니 광윤이도 더욱 신이 나서 따라합니다. 배역을 정하네요. 역시 할머니 역엔 효주가, 해녀 역엔 유진이가, 해녀 아들 역엔 듬직한 광윤이가, 오징어 역엔 자빈이가 되었답니다. 자빈이의 오징어 목소리가 예술이에요~~ 여러디 여린 미역 역할은 연희가 맡았답니다. 근데 지역이와 지혁이, 국형이, 준섭이는 장난꾸러기예요.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웃고, 방해하기도 해요. 그래도 몸짓과 그럴싸한 대사를 곁들여 연습을 하니 다들 신이 나나 봅니다. 멋진 공연을 할 수 있게 열심히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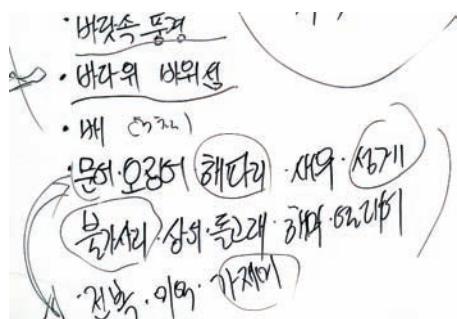


10회차

교육목표 좋은 대본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오늘은 한 달 후에 있을 워크숍에 대한 일정과 내용을 이야기 한 뒤, 수업을 진행합니다. 다른 기관에 있는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인 만큼 열심히 연습을 해야겠죠? 저번 시간에 이어 대본을 다듬어 볼 거예요. 중간 중간 나온 대본을 가지고 역할을 고민하고, 역할에 맞는 목소리를 연구하며, 웬지 어색한 대본의 부분을 손을 보는 과정을 계속 진행합니다. 친구들이 스스로 이상하다고 느껴가며, 또 친구들이 만들어 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배웁니다. 준섭이는 오늘도 여전히 선생님의 말씀을 듣기보단 자기의 말을 더 많이 하네요. 수연이는 오늘도 적극적입니다. 모둠을 이끌어 멋진 대본을 쓰기 위해 고치고 또 고치네요. 광윤이가 “엄마”라고 하니까 철이 들면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는 거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옆에서 지영이와 지혁이는 준섭이와 함께 정신없이 장난을 칩니다. 다른 모둠은 효린선생님의 지도로 자기 대사는 자기가 만들어 보기로 시도해 봅니다. 물론 과격한 표현이나 ‘못생긴’ 이런 유사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겠죠? 결국 준섭이는 퇴장을 당합니다. 퇴장 당한 것이 억울해서인지 계속 구명조끼 입은 부분이 쓸려서 아프다고 말을 합니다. 자빈이의 역할이 변경이 되었네요. 똑같은 작업 같지만 결코 같지 않은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1회차

교육목표 역할에 맞는 연습을 하고, 준비 할 수 있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대본이 나왔습니다. 이제껏 본인들이 손으로 적은 글이 적힌 종이를 듣고 대본 연습을 했는데, 이젠 활자가 인쇄 된 대본을 가지고 연습을 한다고 하니 갑자기 어깨가 더 무거워 지는 것은 저만의 느낌인가요? 이야기를 만들다 보니 캐릭터가 친구들 숫자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개 정도의 역할을 해야 하는 친구들도 눈에 띄어요. 자경이는 마을 사람2도 맡아야 하고 해양경찰역도 해야 해요. 한 사람이 두 역할을 잘 하려면 전혀 다른 목소리와 분위기를 내야 하는데 과연 자경이가 잘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오늘 친구들이 프로그램에 많이 빠졌답니다. 그래서 빠진 친구들 역할까지 있다고 많이 바쁘고 분주하네요. 지영이는 왜 사진을 계속 찍은 거예요? 하며 사진기를 가져 갈 때마다 얼굴을 가린다던가 아니면 옷을 뒤집어 쓰고 투덜거립니다. 그러게요, 왜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는 걸까요? 효주는 할머니 역할을 너무 잘 합니다. 잘 한다고 칭찬을 많이 해 주니 신이 나서 더욱 열심히 해요. 근데 진짜 할머니 목소리 같아요. 가끔 선생님에게 눈을 흘기고, 소리는 지르는 모습만 빼면 참 예쁜 소녀랍니다.





12회차

교육목표 자원봉사자들과 구연연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오늘은 그림자 연극에서 가장 중요한 구연을 연습할 거예요. 그림자극은 그림자로 표현되는 캐릭터와 목소리만 가지고 하는 연극이기 때문에 역할에 맞는 목소리의 표현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작년에 그림자극을 참여한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평소 꾸준히 그림자극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자원봉사자 할머님들을 모시고 역할에 맞는 1대1 수업을 같이 할 거예요. 어떤 목소리가 어울리는지, 그런 목소리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발성 부분부터 높낮이, 뛰어 읽기, 숨 쉬기 등을 배울 거예요. 지혁이는 할머님들이 오셔도 여전히 까불지만 연습을 할 땐 나름 진지합니다. 오늘 처음 온 친구도 있어요. 김훈희라는 초등학교 2학년인 남학생이네요. 이 친구는 다른 형, 누나들이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바라봅니다. 무척 호기심 있게 바라보네요. 여섯 파트로 나누어 할머님 한 분씩 같이 연습을 합니다. 친구들이 먼저 연습한 것을 들려주면 할머님들이 부족한 부분을 조언을 해 주시고, 잘 한 부분을 칭찬도 해 주십니다. 다들 열심히 연습을 한 모습이 보인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주시네요. 자빈이는 오늘 유난히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수연이랑 유진이도 뒤질세라 열심이네요. 지영이는 친구들이랑 장난을 치느라 오늘도 바쁩니다. 전문가와 함께 했기 때문에 행복한 홈스쿨 친구들의 실력이 확~느는 것이 눈이 보입니다.

수업단상 할머니들이 와서 함께 한 시간이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기대한다. 하지만 낯선 분들과의 교류 시간이 없어서 다소 아쉬웠다.



13회차

교육목표 자원봉사자들과 구연연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저번 시간에 이어 오늘도 자원봉사 할머님들과 함께 구연 연습을 할 거예요. 할머님이 오신다고 해서 그런가요? 광윤이가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다듬고 와서 멋져 보입니다. 멋져 보인다고 하니 기분이 좋은지 씩~하고 웃네요. 현진이와 국형이는 캐릭터 그림에 남다른 재주가 있어 전담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자원봉사 할머님들 중 한 분인 남정이 할머님이 첫 만남 이후 참석을 못하시는 아쉬움을 친구들에게 편지로 남겼어요. 효주가 할머님 편지를 읽는 동안 잠시 조용해집니다. 어때요? 한 번의 만남이지만 누군가에겐 이렇게 아쉬운 만남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꼭 친구들 발표회 때 초청장을 드려야겠어요. 지형이는 읽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준성이은 목소리도 커지고 추임새도 넣을 줄 알고 재미있게 읽지만 읽는 습관이 익숙하지 않아요. 계속 연습해야겠죠? 해녀엄마 역엔 아직 가느다란 목소리가 어울리진 않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예쁩니다. 광윤이는 항상 마무리가 아쉬워요. 감정 처리가 어색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자경이는 너무 고개를 당겨서 억지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소리가 잘 나오지 않고 어색합니다.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인 듯해요. 각자 역할을 연습한 후 모여서 다시 했더니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수업단상 자원봉사자와 조금 익숙해져 편안하게 조언을 듣기도 구하기도 한다. 아쉬운 점은 2차시로 시간이 짧다는 거다. 아이들의 성격을 파악해서 그에 맞는 연습 방법이라던가 하는 것은 찾아 주기에는 너무 아쉬웠다.



14회차

교육목표 좀 더 자연스러운 대사를 하기 위한 연습을 열심히 할 수 있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친구들이 또 많이 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배역을 다시 정하고 그림자극 연습을 시작합니다. 광윤이의 아들역할이 제법 자연스러워요. 유진이는 여전히 목소리가 가늘어 엄마 역할이 어색하기만 합니다. 이제 모두들 연습을 많이 해서 다음 대사가 뭔지를 알아 흐름이 끊이질 않네요. 오랜만에 수연이를 만났어요. 수연이가 오니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다시 한 번 역할에 맞는 목소리를 찾기 위해 역할 조정에 들어갑니다. 유진이의 엄마 역할을 수연이가 맡아 봅니다. 목소리가 굵다보니 좀 더 자연스런 느낌이 들어요. 유진이도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유진이는 상인 역할을 해 봅니다. 대사 끝에 ‘호호호~’ 하는 소리가 무척 재미있네요. 다들 웃음이 삠죽 나옵니다. 오히려 상인 역할을 하니 감정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듯해요. 연습이 끝날 무렵 선생님께서 조언을 해 주세요. 대본을 천천히 읽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천천히 읽는 연습을 하며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수업단상 똑같은 것을 자꾸 반복하니 지겨울 만한데도 불구하고 연습을 하는 아이들을 보니 대견하다는 생각이다.





15회차

교육목표 대본을 보지 않고 자연스런 대사를 할 수 있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오늘은 지난번에 있었던 캠프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사람 일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불필요한 일이라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을 하는 눈치입니다. 지영이는 저번에 선생님에게 말대답을 한다고 혼이 무척 났는데요, 이제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네요. 연습을 시작해 볼까요? 대본을 먼저 읽어 봅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감정을 실어서. 지영이가 오늘 너무 열심인데요? 광윤이는 항상 그렇듯 다 좋은데 마지막 ‘감사합니다’란 부분은 감정이 잘 안 잡히나 봅니다. 엄마를 찾아 주셔서 무척 고맙다는 약간 울컥하는 표현이 나와야 하는데, 그냥 해맑은 표현만이 나와 늘 지적을 당하네요. 불가사리, 해파리, 상어는 여전히 대사 속도가 빨라 지적을 당했습니다. 광윤, 수연, 효주가 앞에 나가서 대본 없이 연극을 시연해 봅니다. 모두 잘하는데 효주가 특히 잘 합니다. 밖에서 빠끔히 보는 친구는 누굴까요? 지혁 입니다. 또 떠들어서 벌서는 중이예요. 두 명씩 짹을 지어 나가서 연극 시연을 해 봅니다.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대사 속도가 빠릅니다. 또 띄어쓰기가 되지 않는 친구도 있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의미전달이 되지 않는 친구도 아직까지 있답니다. 이런 친구는 더 분발해야겠죠?





16회차

교육목표 등장인물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음으로 인해 그림자극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등장인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준섭이가 먼저 말을 합니다. “해녀가 못됐어요.” 응? 왜 못됐다 그럴까? 잠시 의아해 했지만, 아들이 돈은 벌어오지 않고 피시방을 간다고 해녀가 야단을 친 사실을 두고 그렇게 생각했다 이해하니 ‘아이답다’란 생각이 듭니다. 지영이는 “불가사리는 간죽대며 잘난체해요.”라고 합니다. 웬지 지영이와 비슷한 성격인 듯해요. 하하! 유진이는 해마가 배신자라며 얼굴을 찌푸리고, 해녀 아들은 성격이 급하고 엄마에게 대들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형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디들 본인의 성격과 비슷한데 싫어한다고 하는 게 참 신기해요. 듣는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의 말에 공감을 하듯 고개를 끄덕, 맞장구를 치는 것을 보니 등장인물에 대해서 비슷하게 공감을 하고 있네요. 다시 구연연습을 합니다. 지혁이가 해설을 하네요. 광윤이는 여전히 엔딩처리가 미흡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말이죠. 그래서 지영이에게 한 번 해 보라고 했더니 어찌나 극적으로 표현을 하는지... 역할을 바꾸어서 해 보는 시간도 가져봅니다. 자신이 이해하고 표현한 방법과 친구들의 것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겠죠? 해녀엔 지혁, 돌고래엔 효주, 아들엔 국형, 할머니엔 지영, 해파리엔 수빈, 마을사람1엔 준섭, 상어엔 자경이가 해 봅니다. 색깔이 조금 바뀌니 또 다른 느낌이 나서 웬지 더 좋은 듯합니다.

수업단상 역할을 바꿔 봄으로써 표현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저절로 알 수 있게 한 점이 좋았다.



17회차

교육목표 연습을 계속해 자연스런 국을 만들 수 있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어떤 공연을 할 지 선생님께서 질문을 던지지만 친구들은 땀 짓만 하네요. 그래놓고는 클라리넷을 누가 제일 잘 불러? 광윤이니? 라는 질문에는 “아니예요~” 라며 비난을 하는 바람에 클라리넷 연주는 종목에서 빠졌답니다. 효주는 기분이 별로인가 봅니다. 할머니 역할을 계속 하라고 하자 “내가 할머니였으면 좋겠어요?” 하고 노려보는 바람에 순간 당황을 했어요. 어떤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계속 연습입니다. 연습만이 살 길인가요? ^^ 친구들에게 좋지 않은 버릇이 있어요. 친구가 실수를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비난을 하고 떠들썩해지는 버릇. 이런 버릇은 없어졌으면 좋을텐데. 준섭이는 친구들 대본 읽을 때 계속 떠들고는 본인이 읽을 때는 뛰어쓰기가 되지 않아 더듬거립니다. 자경이는 결국 상어 역할에서 마을사람2 역으로 바꿨네요. 자신에게 맞는 목소리를 찾게 되어 기쁜 눈치입니다. 자경이 뿐만 아니라 지영이 또한 그러합니다. 저번 주에 이어 오늘도 대사를 멋지게 소화합니다. 똑같은 것을 계속 하니 친구들도 무척 지루한가 봐요. 슬슬 땀 짓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보여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그 때마다 분위기를 바꿔 수업을 진행 하셔서 별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네요.





18회차

교육목표 연습을 계속해 자연스런 극을 만들 수 있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저번 주에 예고한 대로 오늘은 녹음실에 왔습니다. 주의사항을 센터에서 먼저 들은 후 녹음실로 고고씽~~ 그 전에 광윤이가 수업에 집중을 잘 하지 못한 게 너무 길어 결국 역할 교체가 되었네요. 자빈이가 광윤이가 맡던 아들 역을 맡았네요. 광윤이가 조금 속상한가 봅니다. 계속 투투거리네요. 해설 또한 중학생이다 보니 자꾸 수업에 빠지는 준성이에서 유진이로 바꿨어요. 녹음실입니다. 여기서도 주의사항을 듣고 시작을 합니다. 첫 녹음을 하는데 아무래도 친구들이 어색한가 봅니다. 마이크를 옆으로 돌려 녹음을 하는 바람에 첫 녹음은 실패. 효주는 오늘 왜 이리 까부는지. 녹음실에 왔다는 것이 무지 신이 나는 걸까요? 광윤이는 이리 저리 뛰다가 녹음실 의자도 하나 망가뜨렸답니다. 현진이는 배역이 없다고 투투거리고, 지영이는 계속 선생님 말이나 친구들 말에 간죽간죽 말대답. 지혁이는 연희를 의자에 앉지 못하게 계속 방해. 어이구~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는 동안 30분이 후딱 지나갔답니다. 결국 선생님께서 주의를 주시고, 집중하는 모습을 이제야 보이네요. 효주는 계속 눈에 띄어 은주선생님이 녹음실 안으로 들어와 효주에게 경고를 합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되었네요. 그런데도 장면1 밖에 녹음을 하지 못했어요. 너무 시간이 걸려요.





19회차

교육목표 각자의 역할을 잘 준비할 수 있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오늘은 두 모둠으로 나눠 진행할 거예요. 한 모둠은 녹음실로 고고!! 한 팀은 센터에 남아서 대본 녹음한 후 배경과 캐릭터를 그릴 거예요. 광윤, 자경, 준섭, 국형이랍니다. 대본을 먼저 읽어요. 띄어쓰기와 천천히 읽기, 그리고 상황과 역할에 맞는 목소리에 주의를 해 봅니다. 국형이는 상어 역을 하는데, 포스가 나오지 않아 한참을 고민했어요. 목소리를 낮게 깔고, 음침하고 낮은 목소리로 대사를 해야 하는데 감이 잘 안오나봐요. 열 번이 넘게 연습을 한 후 녹음을 했답니다. 자경이는 자심감이 부족해요. 그렇지, 바로 그거야. 쫌만 더 하면 완벽해~라며 엄지손가락을 세워줬더니 신이 나서 목소리가 자꾸 커지면서 또렷해지더니 몇 번 하지 않아도 오케이!!! 광윤이는 집중하지 못하더니 결국 다른 친구에게 역할을 빼앗기고 말았네요. 준섭이 또한 수업시간에 친구들이랑 장난치기 바쁘더니 남아서 나머지 공부를 하네요. 몇 번의 연습을 하고 녹음을 다 마친 후 배경 그리기를 했답니다. 시장, 생선가게, 바다 속, 검은 바다 위 고기잡이 배, 상어, 돌고래 등을 그렸어요. 국형이는 그림 솜씨가 제법입니다. 상어도 돌고래도 쓱쓱, 해녀가 사는 집도 쓱쓱~ 모두모두 재주를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랍니다.

수업단상 수업이 진행되면서 아이들과 친해지다보니, 아이들이 별의별 이야기를 다한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센터에서 일어난 일 등 소소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참 예쁘다. 결국 아이들에겐 관심이 먼저인 것은 틀림이 없다.

그림자극 프로젝트 '바다와 사람'

행복한 아이들을 꿈꾸며

그림자극프로젝트 '바다와 사람' 문화예술교육강사 김 정 민

할머니보다도 더 할머니 목소리를 잘내는 효주. 아기문어소리를 너무도 귀엽게 표현하는 자빈이. 해설까지 2인 2역을 훌륭히 소화해내는 유진이. 마을아저씨 역할을 기분이 좋을 때는 멋지게 흉내 내는 지영이. 연습하면서 여러 번 발동하는 장난끼로 교실 벽과 유난히 친했던 지혁이. 무뚝뚝한 듯 보여도 진심어린 청찬에 금세 아이 같은 웃음을 보이는 준섭이. 첫 연습할 때부터 엄마 흉내를 너무도 근사하게 냈던 수연이. 상어 소리를 정말 상어처럼 내고 싶어한 자경이. 우직한 목소리로 제법 아들 목소리를 잘 냈지만 자빈이에게 아들 역을 양보해야했던 광윤이. 사진 찍을 때마다 얼굴을 가리다가 이제는 슬며시 모른 척 해주는 국형이. 왜 안보일까 궁금해지면 연예인처럼 한번 씩 얼굴을 보여주던 연희. 준성이. 현진이 그리고 유민이.



이 아이들이 행복한홈스쿨의 열정 넘치는 재주 많은 개구쟁이들입니다. 부족한 열정을 어떻게 하면 이끌어낼 수 있을까가 아니라 넘쳐나는 에너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해주는 원기 넘치는 악동들 이죠.^^ 여름방학도 끝을 달려가고 있던 즈음 만나서 벌써 모자 장갑까지 무장하는 겨울이 되는 동안 일주일에 한번, 두번 만나면서 정이 들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건네며 들어갈 때 장난끼 많은 모습으로 오히려 어른인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던 탁월한 연기력은 그림자극을 연습하는 동안 아이들의 실력으로 빛을 발했고, 어수선하고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의 놀이 공간은 그림자극에 필요한 역할을 녹음할 때 실감나는 모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12월 공연에 함께 선보일 오카리나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소리와 함께 울리는 오카리나를 들으면서 연주하는 동안 진지해지는 아이들의 얼굴을 차례대로 카메라에 담아 보았습니다. 사진속의 아이들 표정에는 장난스러움보다는 진지함이 더 많이 있습니다. 개구쟁이들 인줄만 알았는데 의젓함이 보입니다. 그래도 연주곡이 끝나면 금세 강사님의 기운을 쏙 빼지게 만드는 기술로 분위기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좀 더 완성된 공연을 위하여 강사님들이 온 힘을 쏟아 부어 방전이 되어도 행복한 아이들은 결코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가끔 무얼 먹으면 저렇게 힘이 넘쳐날까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저녁 아이들을 또 만나러 갑니다. 행복한홈스쿨의 아이들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세 번의 연습이 끝나면 그 동안의 노력을 무대에서 펼칩니다. 그동안 대본을 함께 만들고, 실감나는 목소리 표현을 위해 수십 번 연습하고 녹음하고, 구연동화 할머니 선생님들의 가르침도 전수받고, 무대에 올릴 배경화면도 열심히 그렸습니다. 강사님들과 아이들이 만들어낸 시간의 결과물이 멋진 무대로 만들어지길 기대해봅니다. 그 무대를 보면서 아이들의 생각도, 마음의 키도 한 뼘씩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홈스쿨 개구쟁이들 화이팅!!!



문화예술로 만나는 '유정충 선장'

위스타트 아이들의 노래와 미술

사진과 미술,
노래와 스토리텔링으로
유정충 선장님의 마음을
담아 보았어요.



안녕하세요?
유정충 선장님!



교육프로그램

교육주제	내용
스토리텔링 수업 (유정충선장 만나기)	유정충선장의 일대기에 관련한 인물을 통해 유정충 선장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표현하기	스토리텔링을 통해 알게 된 유정충 선장님에 관련된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본다. 그리기-4컷만화, 집단화, 노래 패러디, 글쓰기
P.I.E 교육	사진활용수업을 시도. 자신이 찍고 싶은 것을 찍어 보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친구들이 찍은 사진을 보고 느낌이나 이야기를 꾸며 보는 시간
벽화수업 (밑그림 그리기)	벽화를 왜 그리는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 이야기를 나누고 먼저 표현하고 싶은 것을 그린 후 표현 기법 등을 이동수 선생님께 배우는 시간
벽화수업 (본그림 그리고 채색, 마무리)	벽화 제작을 위해 이동수 선생님과 함께 밑그림을 그린 후, 채색 과정을 거쳐 벽화 완성
발표회 준비	발표회 과정을 고민하고, 발표 준비를 하며, 초대장을 만들어 발송

사진으로 보는 교육프로그램



유정충 선장 만나기(스토리텔링 수업)



유정충 선장에 대한 이야기를
유인물을 통해 살펴보는 중.



'유정충 선장님이었다면 어떻
게 했을까?'라는 선생님의
질문! 진지하게 고민, 메모!
호진이는 친구 생각이 궁금해~



유정충 선장이 왜 배에서
탈출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물어 보는 경보.



표현하기(그리기-4컷 만화, 집단화, 노래 패러디, 글쓰기)



4학년 세민이가 유정충 선장님
에 대한 이야기를 큰 소리로
읽고 있다.



욕심쟁이 호진이. 선생님이¹
알려 주신 것 보다
더 잘하고 싶은 욕심에
1시간 넘게 고민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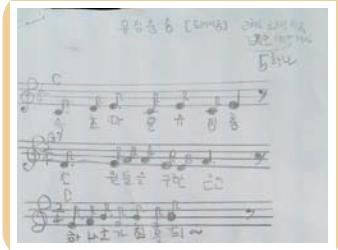
세민이의 4컷만화.
엄청난 폭풍우를 표현했다.



노래 패러디 시간.
팀을 나누기 전 어떤 곡을
선택을 할까 다들 진지하다.



상규는 영어 곡으로 하고
싶은데 어려워서 포기
한다고 한다.



지현이와 지영이의 작품.
오선지에 음표까지 그렸다.



처음이 너무 어려운 혜지.
맘에 드는 곡을 발견할때까지
찾고 또 찾고!!



채린이와 하은이는 '곰세마리'
라는 곡에 맞춰 가사를
만들었다.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두근두근하다.



갑자기 쓰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지 저요!! 라며
우르르 선생님께 달려 나간다.



글쓰기는 어려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정들이
심각하다.



비구름도 그리고,
난파된 배도 그리고...

사진으로 보는 교육프로그램



사진활용교육(P.I.E)



글을 보고 문법이나 맞춤법, 표현이 적절한지 선생님께 조언을....

야외수업 ‘꼬인줄 풀기’

친구들이 찍은 사진을 보고 느낌이나 이야기를 쓰쓰



벽화수업(밑그림 그리기)



벽화수업 첫 시간.
그리고 싶은 것,
또는 자신의 얼굴,
친구 얼굴을 그릴 준비 중이다.

어떻게 그리는 것이 좋은지
등을 선생님께
조언을 듣고 있다.

쓰쓰 썩쌩!!! 그리는 중이다.
벽화를 그리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벽화수업(본그림 그리고 채색)



벽화제작을 위한 마무리 단계인 채색. 어떤 색깔이 좋을까? 선생님과 함께 의논하고 있는 친구들

나만의 색을 찾을 수 있을까?
유정충 선장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색깔은 뭘까?

조심 조심, 다 된 그림 망칠까
싶은 걱정스런 모습이 보인다.



발표회 준비



우리가 만든 발표회는
우리가 책임진다.
발표회 초청장 만들기를
하는 모습

무슨 말을 써야 할까?
정성스레 한글자 한글자
적는 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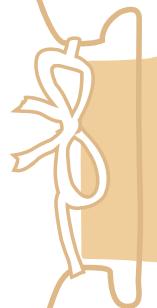
유정충 문화제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문화예술로 만나는 '유정충 선장'

위스타트 모니터링

유정충 선장과 2년째 만나는 아이들. 지난 해는 어부들의 삶을 이해하고 생활용품으로 난타를 만들었죠. 올해는 노래 가사를 바꾸고, 사진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그림으로 유정충 선장의 마음을 담아내는 시간을 가졌어요. 유정충문화제 초청장도 직접 만들고, 사회도 보았던 시간들. 선생님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 이 희진 -





1회차

교육목표 프로그램 내용을 알고 유정충선장의 의로움을 마음에 새긴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오늘은 속초문화원과 함께 하는 유정충문화제 만들기 수업 첫날입니다. 작년에도 오성란선생님과 프로그램을 진행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선생님을 너무 반갑게 맞이합니다. 선생님들을 소개하는 시간 다음에는 당연하게 프로그램 소개가 있어야 하겠죠? 마지막에 유정충문화제를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하겠죠? 스토리텔링, 노래 패러디, 시쓰기, 집단화 그리기, 사진 찍고 작품 만들기, 벽화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 한 후 첫 질문을 선생님이 하시네요. “바다하면 떠오르는 생각이나 바다에 관련된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 해 볼래?” 작년에 오선생님과 같이 작업을 한 아이들은 손을 금방금방 들지만, 아직 어색한 아이들은 쭈뼛쭈뼛 거리네요. 효진이가 손을 번쩍 듭니다. “파란색과 흰색요!” “고기잡는 사람요!” 세민이가 말을 하자 여기저기서 “구름요!” “물고기요! “태풍요!” “회요!” 갑자기 시끌벅적해 집니다. 그러는 동안 어색했던 게 훅~없어져 버렸어요. 체험은 이야기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요. 선생님이 어릴 때 물에 빠질 뻔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채린이도 그런 경험을 했나 봐요.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마음을 열고 친해지는 시간이 지난 후 유정충선장님 이야기를 읽어요. 조용해 져요. 어떤 이야기인지 알고 있는 아이들도 같이 조용해요. 위스타트 첫 수업이었습니다.

수업단상 몇몇 친한 친구들끼리 앉다 보니 첫 수업부터 나뉘지는 모습이 보인다. 마음 여는 시간이 길어 선생님과 아이들이, 아이들끼리 서로에 대해 좀 더 친밀감을 느낀다면 앞으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 훨씬 큰 효과가 나리라 생각한다.



2회차

교육목표 유정충 선장 이야기를 듣고 본받을 점을 발표할 수 있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유정충 선장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친구들이 몇몇씩 짹을 지어옵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친구들의 초등학교가 각각 달라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아무래도 반복 수업을 해야 할까 봅니다. 세찬이와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어제는 학교에서 일이 있어서 참석을 하지 못했거든요. 세찬이와 친구들에게 유정충 선장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줍니다. 눈이 또랑 또랑하게 듣고 있던 세찬이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왜 선장님은 탈출을 하지 않았어요?” 난파된 배에서 탈출을 해서 구명보트에 타기만 하면 살아 돌아올 수 있다는, 아이다운 질문입니다. 성란쌤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니다. 구명보트를 탄다고 해서 다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폭풍 우가 치는 바다 어느 곳에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계속 통신으로 알려줘야만 큰 배가 와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바쳐 다른 사람들을 살린다는 것은 아직 이해하지 못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너희들이 유정충 선장님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했겠니?”라고 선생님이 물어 보지만 답을 하는 친구들은 없네요. 그러는 동안 다른 친구들도 속속히 들어옵니다. 또 유정충 선장님 이야기를 들려 줘야겠네요. 그러는 동안 세진이와 친구들은 자신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봐야겠지요. 오늘은 유정충 선장님의 이타심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업단상 아이들의 학교가 저마다 달라서 오는 시간이 각기 다르다.

또한 일찍 와서 일찍 가는 아이들과, 늦게 와서 늦게 가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수업 진행이 어려운 점이 많다.

수업시간에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끄러워 질 때도 있다.
자유로움과 엄격한 규제. 여전히 숙제다.



3회차

교육목표 유정충선장님의 삶을 반영한 4컷 만화를 그릴 수 있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저번 주에 ‘만약 내가 유정충 선장님이라면...’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생각을 끄집어 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5학년 세민이가 제일 먼저 왔네요. 5학년인 세민이는 저번 주에 참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유정충 선장님 이야기를 들려주네요. 끝까지 선장님이 배에 남아 있는 이유에 대해 묻자 무전을 치느라 남아 있는 거라고 세민이는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른 친구들도 속속 도착을 하고 용기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다음엔 4컷 만화를 그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유정충 선장님 이야기를 듣고 4컷 만화로 표현하는 시간인데 어떤 작품들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 살다 온 채린이는 선생님의 말을 알아듣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 주어도 힘들다며 울상을 짓습니다. 그래서 효진이가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는데 간혹 그 친절이 과해 채린이가 힘들어 할 때도 있습니다. 효진이는 고민을 엄청 합니다. 어떤 장면을 넣을지가 결정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네요. 쉽게 생각하라고 해도 벌써 고민만 1시간을 훌쩍 넘기고 맙니다. 태주는 다른 친구와 달리 시작을 독특하게 합니다. 4컷 만화를 그릴 때 먼저 자로 반드시 칸을 그린 다음 만화를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유민이는 하기 싫다고 짜증만 부리느라 결국 한 컷도 그리지 못했고요, 세민이는 만화 속에 선장님 이 구해 준 선원을 모두 그려 넣었답니다. 그리고 한 줄 글도 여러 줄로 독특하게 썼네요. 친구들의 성격이 4컷 만화 속에 들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업단상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상황을 상상하게끔 한 다음,
만약 나라면... 이런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선장님의 용기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함으로써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배경을 탄탄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4컷 만화 그리기에서도 개성 넘치는 그림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4회차

교육목표 유정충선장의 삶을 노래로 표현할 수 있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오늘은 너무너무 재미있는 시간입니다. 친구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시간, 여자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는 시간. 무슨 시간이냐고요? 바로바로 노래 부르는 시간입니다. 더 자세히 말을 한다면 자기가 알고 있는 노래에 유정충선장님에 대한 가사를 만들어 붙여 부르는 시간이랍니다. 처음에 선생님의 설명을 들은 친구들은 남자와 여자팀으로 나누어 어떤 가사를 어떤 곡에 붙일 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 시작하네요. 6학년 상규는 영어로 부르고 싶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금세 포기하더니 스마트폰으로 ‘우유송’을 찾아 불러 보며 가사를 생각합니다. 종선이는 유정충선장님에 대한 이야기 읽는 걸 소홀히 하면 가사 쓰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더니 다시 유정충선장님 이야기를 읽어 봅니다. 4학년 규리와 경보가 또 한 팀을 만들었네요. 지영이와 지현이는 ‘종이접기’ 노래에 맞추어 가사를 만들어 봅니다. 어느 새 교실에는 저마다 친구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다른 친구들의 노랫소리에 얼굴을 찌푸리다가도 어느 새 자신들도 흥얼거리는 얼굴에 가득한 미소가 참 예쁩니다. 어떤 노래들이 나올 지 다음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수업단상 빨리 오는 아이들은 늦게 오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포용하는 모습이 보기 좋은 시간이었다. 또 노래하는 것을 어색해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부르는 모습이 참 예뻤다. 지현, 지영이는 악보까지 그려가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줘 다른 아이들에게도 멋진 모습을 보여 주었다.



5회차

교육목표 유정충선장의 삶을 노래로 표현할 수 있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하은이와 정호가 오늘 처음으로 수업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친구들에게 다시 한 번 유정충 선장님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네요. 잘생긴 정호는 ‘안녕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겠지요’라는 곡에다 맞춰 쓰겠다고 결심을 하며 노래를 찾고, 또 가사를 만들지만, 그게 쉽지 않은지 계속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채린이와 하은이는 한 팀이 되어 ‘짱구는 못 말려’라는 곡에 맞춰 가사를 쓰기 시작하지만 글쎄요, 과연 잘 될지는 두고 봐야겠네요. 세민이는 ‘명탐정 고난’으로 장난스럽게 제목을 붙인 후 세 줄 정도 가사를 만들고는 계속 친구들이 만드는 것만 보고, 참견만 합니다. 경보는 미래소년 코난이 마음에 드는가 봐요. 큰 소리로 노래를 먼저 불러 봅니다. 혜지는 시작이 너무 어려운가 봐요. 계속 고민만 하고 있네요. 짱구는 못 말려란 곡이 너무 어려웠던 채린·하은 팀은 결국 ‘곰세마리’로 노래를 바꿨네요. 그랬더니 가사가 술술~~~~~금방 한 곡을 뚝딱 만들어서 예쁜 목소리로 불러 봅니다. 다음 시간엔 완성된 곡이 나올 수 있을까요?

수업단상 아이들에 따라 혼자서 무언가를 처음 시작하는 일을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집에서 부모님이 함께 하는 습관때문인 것 같다.

그런 아이들에게는 조심스럽게 다른 아이들이 함께 하여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 같다.

결국 무엇을 남기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남기기 위한 한 명 한 명의 과정이 더 중요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6회차

교육목표 유정충선장님의 삶이 담긴 글을 쓸 수 있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저번에는 노래 가사를 만들고 노래도 큰 소리로 불러 보는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소리가 아닌 손으로 글을 써 보는 시간을 가져 볼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휴~~~하는 한숨소리가 터져 나오네요. 친구들에게 글쓰기는 아직 쉽지 않은 작업인가 봅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글의 종류를 알려 주시네요. 글의 종류에는 편지글, 설명문, 시 등이 있어요. 이 중에서 본인이 쓰고 싶은 글의 형식을 선택한 다음 내용을 쓰면 되겠죠? 종선이는 벌써 생각이 났나봅니다. 연필을 찾고, 글을 쓸 종이를 달라고 하네요. 다른 친구들은 부러운 눈치네요. 지영이는 무얼 쓸까... 곰곰이 생각하고, 효진이는 심드렁합니다. 글 쓰는 것에 흥미가 없나 봅니다. 태주는 지영이와 속닥속닥~~ 할 이야기가 많은지 계속 웃으면서 이야기 하느라 정신이 없네요. 글을 쓰고 발표를 해 보는 시간까지 가지려고 하는데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 덕분에 그럴 수 없을 것 같죠? 발표까지는 아니더라도 글쓰기에 대해 조금만 덜 어려워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수업단상 아이들에게 글쓰기는 참 어려운 작업이다.

아무리 사전에 글을 쓰기 위해 다양한 꺼리들을 가지고 활동을 해도 글쓰기라는 것은 어떤 형식이 있고, 이때까지 배워왔던 글들이 멋진 작품이 많았기에 ‘글은 무조건 잘 써야한다.’라는 것이 아이들의 창의력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다.

7회차

교육목표 유정충선장님의 삶을 협동화로 표현할 수 있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이번과 다음 시간은 협동화를 그릴 거예요. 커다란 전지에 모든 친구들이 모여 한 작품을 만들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한꺼번에 모이지 않아 두세 명씩 짹을 지어 그리기로 했어요. 이제껏 알아왔던 유정충선장님의 생애 중 표현하고 싶은 부분을 그림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글쓰기는 그렇게 어려워하던 친구들이 그림을 그린다고 하니까 너무 즐거운가 봐요. 제일 먼저 온 세민이는 오늘 심각하네요. 왜냐고요? 저번 시간에 했던 노래 패러디가 문제가 생겼거든요. 무슨 문제냐고요? ‘망, 망, 망했다~’로 장난스럽게 만들었던 노래를 11월 발표회 때 혼자 나가서 불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이런... “다시 만들면 안돼요?” 하고 심각하게 묻는 세민이가 참 귀엽습니다. 조금 있다 보니 친구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들어옵니다. 어느 새 팀들이 만들어졌네요. 세민이는 채린이와 한 팀이 되었습니다. 효진이는 오늘 팀이 생겼네요. 살짝 미소가 얼굴에 보입니다. 속삭속삭~~쓱쓱~~저마다 나타내고 싶은 그림의 밑그림을 그린다고 조용합니다. 흠... 채색이 기다려집니다.

수업단상 협동화를 그리는데 미리 재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

다소 시간이 지체가 되었다.

재료 또한 제한적이라 좀 아쉬웠다.





8회차

교육목표 유정충 선장의 삶을 협동화로 표현할 수 있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오늘도 협동화를 그립 거예요. 저번 시간에 결석한 친구들은 빨리 밑그림을 그려야 해요. 채색을 곧 시작할 테니까요. 602호 하나호를 그려 놓고 나선 어떤 내용을 표현할까 고민하는 친구도 있고, 그림을 대각선으로 나눠 한 쪽은 유정충 선장님이 무선을 계속 치는 모습을 그리고 다른 쪽엔 선원들이 구명선을 타고 탈출을 한 모습을 그리는 친구들도 보여요. 종선이팀이네요. 아이디어가 멋지죠? 선생님께서 읽어 주신 내용을 잘 들었나 봅니다. 채린이 와 세민이는 저번에 작은 종이에 그림을 그렸다가 다시 큰 종이에 옮겨 봅니다. 세민이가 쓱쓱~~~~ 멋진 표현을 기대해 봅니다. 모든 친구들의 그림을 마무리하고 보니 똑같은 그림은 없네요. 어떤 친구들은 배를 타고 나가는 장면을, 다른 친구들은 난파하는 장면을, 또 다른 친구들은 선원들이 구조되는 장면을 표현했습니다. 모든 친구들 맘속 깊이 유정충 선장님의 값진 희생이 남아 있길 기대해 봅니다.

수업단상 다양한 표현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했던 것이 잘 표현된

시간이었다. 적극적 표현이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 탐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9회차

교육목표 P.I.E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P·I·E 교육은 미국 듀크대학교 다큐멘터리 연구소가 1991년 사진가이자 교육자인 웬디 이월드를 초청해 만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 더럼 시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사진과 글쓰기를 가르치면서 시작됐죠.

‘사진을 통한 읽기와 쓰기’인 이 교육법은 어린이들의 감성과 지각, 학습 능력을 사진을 통해 개발시키는 것이 목적이죠. 그렇다고 거창한 내용이나 어려운 진행은 없어요. 단지 자신이 찍고 싶은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인화해서 왜 찍게 되었는지, 무얼 표현하고 싶었는지, 더 나아가 그런 사진을 모아 공통된 주제로 표현해 보는 거죠. 친구들의 손이 균질근질 한가 봅니다. 빨리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거죠. 답답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것보다 야외 수업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은 말은 하지 않아도 알겠죠? 선생님을 통해 교육의 의미와 방법을 들어요. 웅성웅성~ 한쪽에선 벌써 어떤 것을 찍을지 이야기하는 소리가 납니다. 오늘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실내에서 사진을 찍어 본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아 뭐야~’ 하며 실망하는 소리가 커더니, 이내 선생님께서 가져 오신 사진에 폭 빠져요. 어떻게 사진을 찍었는지, 왜 이런 글을 썼는지 설명을 해 주었더니, 머릿속으로 생각이 가득 차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음에 어떤 사진과 글이 나올지 기대되지 않아요?

수업단상 다양한 사진이 있었으면 멋진 아이들의 생각을
끌어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10회차

교육목표 사진을 촬영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발표할 수 있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저번 P·I·E 시간에는 P·I·E가 어떤 교육인가와 선생님이 찍은 사진으로 나눔을 했죠? 오늘은 직접 사진을 찍어 볼 거예요. 지영이는 손가락을 이리저리 모양을 바꿔가며 얼굴에다 대어 봅니다. 아무래도 얼굴 사진을 찍을 것 같죠? 한 두 명이 마당으로 나가자 우르르 따라 나갑니다. 무얼 찍을 건지 따라가 볼까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는 모습을 찍는 친구도 있고, 발을 찍는 친구도 있네요. 저쪽에선 연출을 하기도 해요. 사진으로 작업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나 봅니다. 수업 내내 웃음이 떠나질 않네요. 사진을 찍고 웃고 수다를 떠느라 금방 시간이 가 버렸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며 이야기 나누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해요.

수업단상 사진기를 가져 오지 못한 친구들이 많아 선생님 폰을 빌려가서 사진을 찍었지만 시간이 촉박하여 원하는 시간만큼 충분하게 작품이 나오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웠다.





11회차

교육목표 촬영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하여 촬영할 수 있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사진에 무엇을 담을지 진지하게 고민을 하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피사체를 선택을 하기 전 무엇 때문에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야 사진을 찍은 후 인쇄를 했을 때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의 자연스런 생각이나 모습을 끌어내기 위해 앞마당에서 자연스럽게 친교의 시간을 가집니다. 종선, 지영, 세민, 경보 등은 오늘도 여전히 신이 납니다. 누구보다도 바깥 활동에 적극적이네요. 자전거도 타보고, 선생님과 함께 꼬인 손 풀기 게임도 하며, 또 친한 친구끼리 강남스타일 춤도 추어 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새 군었던 표정이 환하게 풀렸습니다. 꼬인 손 풀기 게임에서는 자연스럽게 ‘배려’에 대해 익히게 됩니다. 유정충 선장님이 끝까지 배에 남으셨던 이유를 놀이를 통해 약간이나마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들어와서는 각자 자기가 생각했던 피사체를 찍기 시작합니다. 지영이는 디카를 들고 자기 모습을 찍으려나 봅니다. 혀를 내밀기도 하고, 볼을 불통하니 내밀기도 합니다. 경보 또한 지영이 옆에서 포즈를 잡고 있네요. 근데 경보는 손을 찍으려나 봅니다. 상규, 종선, 하은, 세민이도 나름 진지하게 찍으려는 피사체를 찾으려 노력합니다. 선생님과 어떻게 하면 느낌이 잘 나타나는 자연스런 장면을 찍을 수 있을지에 대해 토론도 해 봅니다. 아마추어 작가들의 첫 작품. 어떤 느낌들이 담길지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수업단상 여러 가지 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유정충 선장님의 의로움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유익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앞서 친교의 시간을 둘으로써 그 다음 프로그램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효과 또한 누릴 수 있었다. 앞으로 다양한 게임이나 기교를 통해 아이들이 지겨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의 목적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면 멋진 프로그램이 될 듯 하다.



12회차

교육목표 자신이 찍은 사진으로 짧은 글쓰기를 할 수 있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저번 차시에서 찍은 사진을 인쇄를 해서 왔습니다. 각자 자기가 찍은 사진을 보며 즐거워합니다. 이번 시간이 글쓰기 시간인데도 아이들이 두려워 하지 않는 것은 저번에 충분히 느낌을 이야기했었고, 그 느낌을 잘 살려 찍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인가 봅니다. 여러 장의 사진들 속에서 본인의 마음에 쏙 드는 사진을 찾아내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마음에 쏙 든다는 것은 그만큼 느낌을 잘 담았다는 의미일 테니까요. 규리는 꼬인 손 풀기 게임을 하는 사진을 선택을 했습니다.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것이 풀렸을 때 기뻤기 때문이라고 느낌을 발표합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기특한 말도 잊지 않네요. 종선이는 강남스타일 춤을 추는 사진을 추천합니다. 춤을 잘 춰서라나요???ㅎㅎ 지영이는 경보와 둘이 나란히 다른 포즈를 하고 찍은 사진을 골랐답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사진에 보이는 데 본인 또한 그런 까닭이겠죠? 각자가 가진 느낌을 살려 사진에 담아 보는 작업을 하려 합니다. 글쓰기로요. 아직까지 글쓰기는 어렵지만 솔직한 마음에 상상력을 더해 글을 쓴다면 훌륭한 작가의 작품 못지않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요? 지우개로 몇 번을 지웠다 쓰기도 하고, 다른 종이를 가져가서 새롭게 쓰기도 합니다. 최종적으로 선생님께 가져가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표현력 등을 교정을 받습니다. 다듬고 나니 훨씬 자신의 표현이 멋스러워 다들 만족해합니다.

수업단상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아이들의 생각을 끌어내는 작업이 흥미로웠다. 글쓰기 또한 사진으로 접근하니까 덜 어려워한다. 결국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어떤 매체를 이용해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을까 하는 끊임없는 교사의 고민이 있어야 함을 느꼈다.





13회차

교육목표 자신과 친숙한 손의 다양한 모습을 촬영할 수 있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자신의 몸은 너무 익숙하죠? 눈은 보고, 코는 냄새를 맡고 숨을 쉬고, 머리는 생각을 하고, 발을 힘들게 걷거나 뛰고, 손은??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 몸에서 가장 고마운 부분은 무엇일까요? 손이라는 대다수의 의견이 나왔네요. 아무래도 손은 다른 부분보다 가장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생각인가 봐요. 손이 하는 일은 뭘까요? 물건을 집거나 던지는 일 말고도 밥을 먹고 수영을 하고, 다른 친구들과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할 수 있는 게 손이네요. 그리고 보니 손이 하는 일은 참 다양합니다. 손이 하는 일을 이야기 한 후 이젠 손에 의미를 붙여 보려 합니다. 어떤 의미를 붙여 볼 수 있을까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쁜 손, 고마운 손, 남을 때리는 손, 악수하는 손, 꼬집는 손 등. 얼마나 많은지 시끌시끌하네요. 그럼 이런 손을 표현해 볼까요? 두 명씩 짹을 지어 의미에 따라 다양한 손의 모습을 표현해 봅니다. 의미는 같은데 표현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친구들이 알게 되면서 재미있어 합니다. 자연스럽게 또 배려하는 모습을 배우게 되네요. 왜 표현을 달리 하는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의 사물을 보는 시각과 표현하는 방법이 절마다 다름을 알게 되니 이게 배려가 아니면 뭘까요? 두 명씩 짹을 지어 표현을 하다가 네 명씩 짹을 짓기도 하고 나중에는 모두 모여서 여러 가지를 표현해 보기도 합니다. 서로의 의견도 조절해야 하고 표현할 때 힘이나 기교도 조율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몸으로 배려를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업단상 요즘은 집에서 아이들이 거의 혼자 아니면 둘이다 보니 타인에 대한 배려나 이해가 부족하다. “배려합시다.”라고 아무리 떠들어 봐야 실제로 다가오지 못한다 아이들이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 익힐 수 있는 것들이 살아있는 지식이요, 절실한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시간이다.



14회차

교육목표 손을 촬영한 사진으로 다양한 광고를 만들 수 있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광고가 뭘까요? 광고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책자를 가지고 와서 광고가 어떤 것인지 먼저 알아봅니다. 광고의 문구를 살피고, 광고의 목적을 알아본 다음 광고의 형식을 찾아봅니다. 어떤 광고를 해 볼까요? 먼저 무엇을 광고할 건지 정한 다음 그 이유를 적어 봅니다. 그 이유에 적합한 사진을 그 다음 골라야겠죠? 사진이 내가 하고자 하는 광고의 목적에 적합한지, 또 사진에 내가 하고자 하는 광고 문구를 표현 할 수 있는지 여러 각도로 고민도 하고 메모도 해 봅니다. 카페라이터와 같은 멋진 문구는 아니어도 재미있는 문구도 나옵니다. 서로 발표를 해 보며 키득거리기도 하고 흐뭇해하기도 하고... 이번엔 서로 사진을 바꿔 광고문을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해 보려 합니다. 똑같은 사진이지만 어떤 모습을 보느냐에 따라 광고문이 달라지겠죠? 두 손을 모아 하트 모양을 만든 사진을 보여 영제는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라고 광고문을 쓰고, 세민이는 ‘이렇게 손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어요.’라고 문구를 만들었네요. 마지막으로 광고의 유익한 점과 그렇지 않은 점을 이야기 해 보며 마무리를 짓습니다.

수업단상 광고를 TV에서 수시로 접하면서 그냥 훌려버리기 일쑤다.

아니면 너무 꼼꼼히 봐 마치 광고하는 것이 진실로 느낄 때도 있다. 이런 광고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목적과 과정으로 만들어 지는지, 광고의 장단점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15회차

교육목표 글감을 위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글을 쓰기 위해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친구들과 바닷가에 나왔습니다. 속초에서는 바다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곳이라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하며 따라 나오더니, 바닷가에 도착하니 언제 그랬냐는 듯 신나게 뛽니다. 물수재비도 뜨고, 모래성도 쌓고, 모래 그림도 그리며 바닷물과 술래잡기 놀이도 합니다. 조개껍질을 모으는 재미가 짭짤해 보입니다. 경보는 조개껍질을 찾으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어 보입니다. 신나게 놀았으니 또 관련 수업도 빠질 수 없겠죠? 시 수업을 하려 합니다. 바다와 관련된 시를 가지고 와서 파도 소리를 배경삼아 낭송을 해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교실 안에서 책으로 시를 배우고 외우고 읽는 것에서 벗어서 현장에 나와 파도 소리를 배경음으로 삼아 시를 낭송하니 정말 기분이 절로 나겠죠? 한동안 어색해서 뒤로 빼기도 하고, 킥킥거리며 웃느라 제대로 읽혀지지 않던 시들이 어느 새 친구들 입에서 제법 분위기에 맞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꼬마 시인들이 탄생했습니다. 이야기보따리도 풀어냅니다. 바다와 관련된 일화를 저마다 이야기를 해 보는데 속초라고 곳에서 살다 보니 이야기꺼리도 참 다양합니다. 낭송하는 모습,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내는 모습, 물수재비를 뜨고, 모래성을 쌓고, 조개껍질을 줍는 모습들이 다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이 사진들이 모여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야기가 된다니, 기대가 무척 됩니다.

수업단상 우리가 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이야기꺼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활동 시간이었다.



16회차

교육목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즐겁게 표현할 수 있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저번에 바닷가에서 재미있게 수업했던 모습들이 담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친구들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때의 그 기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서로 사진을 보며 추억을 되새깁니다. 각자의 사진을 가지고 글을 써 봅니다. 글 쓰기 수업이 몇 차시 계속되었지만 지루하지 않는 까닭은 본인들의 이야기라서 쓸 내용이 무궁무진한 까닭이겠지요. 지현이는 한 장 넘게 글을 씁니다. 태주는 너무 상상이 넘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가 되어 벼렸습니다. 친구들이 웃느라 정신이 없네요. 자신의 이야기만 쓰면 재미없겠죠? 친구들의 사진과 바꿔 이야기를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더 재미있게 만들어 주느라 자신의 이야기를 쓸 때보다 진지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활동을 하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쓰고 하면서 글 쓰는 능력뿐만 아니라 배려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이 쑥쑥 자라는 친구들입니다.

수업단상 우리가 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활동 시간이었다.





17회차

교육목표 타일 벽화에 필요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이동수선생님과 함께 하는 타일벽화 첫 시간입니다. 타일벽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합니다. 작년에 선생님과 수업을 같이 했던 친구들은 선생님께 아는 체를 합니다. 선생님도 반가워하시네요. 타일벽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타일벽화를 무엇 때문에 작업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시지만, 좀 어려운 내용인가 봐요. 고개를 갸우뚱~먼저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 보라고 하시네요. 어떤 그림이라도 되나요? 친구 그림은요? 제 얼굴을 그려도 되요? 여기저기서 친구들의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지 않으면 불안한가 봐요. ㅎㅎ “그렇다.”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쑥쑥 벌써 그리기 시작하는 친구, 거울을 꺼내 자신의 모습을 유심히 살피는 친구, 턱을 받치고 뭘 그리지? 하며 곰곰이 생각하는 친구 그 모습도 참 다양합니다. 규리는 친구의 모습을 쑥쑥~ 벌써 그려 왔습니다. 너무 만화 같네요. 선생님께서 이곳저곳을 손을 봐주지만, 규리는 더 이상 그리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바람에 그리고 싶은 것을 한 장 더 그리는 것으로 합의를 합니다. 친구들이 그림을 어려워합니다. 잘 그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어느 새 박혀 있다 보니 자신의 색깔을 내는 규리 같은 친구들이 더 멋져 보입니다.

수업단상 아동 수업의 경험이 적은 화가와 아이들의 만남이었다.

조금은 어렵게 다가가는 시간이었지만 그때마다 주강사인
오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신다. 통합문화예술교육의
원리를 아는 주강사의 존재가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



18회차

교육목표 그리운 얼굴, 고마운 얼굴을 그릴 수 있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오늘의 주제는 ‘그리운 얼굴, 고마운 얼굴’입니다. 주제를 발표했으니 각자 돌아가며 생각나는 얼굴을 이야기해야겠죠? 어떤 얼굴이 그리운 얼굴, 고마운 얼굴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 봅니다. 지현이는 할머니의 얼굴이 그립다고 합니다. 어릴 때 맞난 것도 많이 사주시고 예뻐해 주셨기 때문이랍니다. 호진이는 전학 간 친구의 얼굴이 그립다고 하고, 세민이는 미국에서 살 때 친한 친구의 얼굴이 그립습니다. 그리운 사람들의 모습을 그릴 땐 어떤 특징을 살려 그려야 할까요? 선생님께서 그리는 방법에 대해 알려 주세요. 전문가의 설명이다 보니 완전히 이해는 되지 않지만,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대략 느낌으로 이해하는 눈치입니다. 그리운 얼굴, 고마운 얼굴을 그릴 때 관련 이미지들도 같이 그리게 했더니 한층 더 안심하는 친구들입니다. 얼굴을 똑같이 그리기는 힘들지만, 무엇인가 매개체를 둔다면 그리운 마음, 고마운 마음이 익숙하게 표현된다고 생각되나 봅니다. 오늘은 그리운 사람, 고마운 얼굴을 그리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업단상 그림을 그린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나 좋은
기억들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함으로써 더욱 알찬 시간이었다.





19회차

교육목표 선원들의 생활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선원들은 어떤 생활을 할까요? 배 안에서의 생활이 정말 궁금합니다. 배 안도 집안과 마찬가지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친구들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고기를 먼 곳까지 잡으러 나갈 때는 몇 날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잠잘 곳도 화장실도 먹을 것을 만들 곳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배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큰 배든 작은 배든 간에 선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답니다. 물론 집처럼 편안하지만은 않죠. 배 타는 직업을 가진 부모님이 계신 친구들은 잘 아니까 친구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 줍니다. 선원들의 생활이 어떨까 이야기 해 볼까요? 고기를 잡는다는 것 빼곤 육지 생활이랑 비슷하겠죠? 고기를 잡지 않을 때는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듣기도 하며 요리솜씨를 발휘해 맛난 음식도 해 먹겠죠. 한 친구가 “고스톱도 쳐요.”라고 하는 바람에 웃음보가 터졌답니다. 어떤 부분이 힘들지 이야기도 나눴는데 화장실 가는 거랑 샤워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라 압도적으로 많았네요. 이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타일 벽화 그림을 그립니다. 본인의 생각이 들어 간 그림을 택하고 그 그림을 그리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대요. 타일벽화 그림이기 때문에 그림은 상관이 없지만 글은 좌우를 바꿔 써야 한다는 것. 그래야 타일에 그림을 인쇄할 땐 글이 바르게 나오겠죠? 그것만 주의한다면 길이길이 남을 멋진 그림이 나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수업단상 아이들의 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는 이야기이다 보니 더욱 적극적인 이야기를 끄집어 낼 수 있었다.
선원들의 삶을 살펴보며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도 되어서 더욱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다.



20회차

교육목표 유정충 선장의 뜻이 담긴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지금까지 유정충 선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좋은 이야기는 자꾸 들어도 좋겠죠? 다시 한 번 유정충 선장님의 일대기를 선생님께 들어 봅니다. 들을 때마다 조난 당시의 상황은 가슴이 뭉클합니다.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타일 벽화에 붙일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어떤 그림들이 마음에 남아 있을까요? 뭐니 뭐니 해도 조난 당시의 상황이 제일 기억에 남아 있죠? 하지만 기억에 남아 있다는 것만으로 그림을 그려 타일벽화에 남기기엔 뭔가 부족합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타일벽화는 떼어내지 않는 이상 몇 년을 계속 한 자리에서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떤 내용이 그림에 담겨야 하는 걸까요? 효민이는 “음... 유정충 선장님의 의로운 맘을 벽화에 담는다면 오랫동안 그 맘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우는 “평소 선장님이 선원들에게 준 도움을 구체적으로 그려 넣는 건 어떨까요?”라고 합니다. 어때요? 그 동안 많은 시간들이 아깝지 않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 것들이 전달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림을 직접 그려 보고 집단화나 4컷 만화와는 또 다른 느낌을 담아봅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남을 그림이라니까 친구들이 더욱 정성을 쏟는 느낌입니다. 아직까지 글자를 반대로 써야 하는 것은 익숙지 않은지 지우개로 지우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나기 시작합니다.

수업단상 유정충 선장님에 대한 다양한 실화가 더 풍부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듣다. 그렇다면 더욱 다양한 그림들이 나올 수 있을테니...



21회차

교육목표 타일벽화를 위한 밀그림에 채색하여 표현할 수 있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타일벽화에 그림이 그려지기 위해서는 전사지라는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특수한 장치로 전사지를 타일에 대고 누르면 열로 인해 전사지 그림이 타일에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색깔 하나 점 하나 까지도. 당연히 모든 게 반대로 벽화에는 나타나겠죠? 그림은 상관이 없겠지만 글을 반대로 나타나면 안 되니까 밀작업에서 반대로 글을 쓰라고 한 것입니다. 그 동안 그런 그림에 채색을 하려 합니다. 근데 채색이라고 하니 우리가 색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12색으로 된 전사지용 사인펜으로 색칠이 아닌 윤곽을 표현하는 정도? 원래 타일벽화는 그렇게 색칠을 하는 건지, 아니면 더 정교하게 그릴 수 있는 도구가 있는 건지 궁금하지만, 그건 나중에 물어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종선이, 규리, 세민의 부족한 부분을 봐 주시네요. 선생님 말씀을 따라 하니 한층 더 그림이 멋있어 졌어요. 타일벽화를 그리는 과정은 글씨를 좌우로 바꿔 써야 하는 것 말고는 새로운 것은 없나 봐요. 다들 과정보다 그림이 어떻게 타일 벽화에 그려지는지 더 궁금해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볼 수 없어 아쉬워요.

수업단상 전사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까지만 아이들과 함께 하는 과정이라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전사지라는 종이가 타일에 어떻게 그림으로 나타나는지 함께 그 과정을 볼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22회차

교육목표 발표회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그림을 그리지 못한 친구는 다른 장소에서 이동수선생님이랑 그림을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발표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 진행해 온 과정들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자리예요. 어떤 것을 보여 줄까요? 음... 그 동안 뭘 했나요? 만화도 그리고 집단화도 그리고, PIE수업도 했고, 노래 패러디도 했네요. 타일벽화 작업도 했고, 바다에 나가서 놀기도 했고. 발표회 때 무얼 할지 의논해 봐야겠죠? 또 누가 무얼 어떻게 할지도 논의를 해야 한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지금껏 했던 것들을 가지고 돌아가며 발표를 시켜 봅니다. 또 발표를 할 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어떤 말투를 얼마만큼의 높낮이로 해야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등을 알려 주시는 것도 잊지 않으시네요. 규리는 또박또박 이야기를 잘 합니다. 조금만 더 미소를 짓는다면 멋진 발표자가 될 듯해요. 세민이는 너무 싱글거리 무얼 발표하는지 잘 전달이 되지 않네요. 호진이는 아래만 보고 발표를 해서 잘 들리지 않고요. 지금은 어색하지만 연습을 더 많이 한다면 익숙해져서 멋진 발표자들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수업단상 ‘먼저 발표를 하는 동영상이나 아나운서의 모습 등을 볼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란 생각을 했다, 아니면 발표 전문가의 강의를 듣는다면 아이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다.





23회차

교육목표 발표회 초청장을 그 목적에 맞게 만들 수 있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발표회 초청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초청장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죠? 그래도 선생님께서 초청장의 목적에 대해 알려 주신 후 몇 가지의 초청장을 가져 오셔서 보여 주시네요. 우선 초청장 안에 어떤 글이 적혀 있어야 할까요? 혜지가 “날짜와 장소요”라고 말하자, 호진이는 “제목요”라고 바로 이어 답을 해요. 맞아요. 무엇에 대한 발표인지 알 수 있게 제목 즉 발표회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커다란 이름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그 밑엔 그 보다는 작은 글씨로 발표하는 장소와 날짜가 나와야 합니다. 또 발표회를 하는 사람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거나, 잘 찾아 올 수 있게 약도, 그리고 마음이 담긴 짧은 글 정도가 나오면 좋을 듯해요. 하지만 너무 많은 글은 보는 이들이 불편하게 하니까 간단명료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되요. 선생님의 설명이 끝나고 저마다 연필로 밑그림을 그린 후 사인펜이나 색연필로 쓰쓰~그리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발표회를 위한 초청장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재미있지 않나요? 초청장을 모아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도 훌륭할 듯해요.

수업단상 초청장을 아이들 스스로 만들게 하는 것이 참 좋은 활동이라 생각한다. 그 동안 자신들이 배워 온 것에 대한 자부심, 보여 줌으로 인해 타인에게 받을 수 있는 인정.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드는 활동이라 생각한다.

문화예술로 만나는 '유정충 선장'

사소한 일상에도 감사를

'문화예술로 만나는 유정충과 바다' 강사 오 성 란

2011년 지역의 역사적 인물인 '유정충 선장'을 소재로 '유정충문화제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유정충 선장의 삶을 스토리텔링, 영상을 촬영하여 다큐구성하기, 난타를 이해하고 만들기, 발표회를 위한 배경막 만들기 등을 수업하였다.

올해는 '유정충문화제 만들기 2탄'으로 '사진 활용 교육(PIE)'과 '타일 벽화'를 계획하였다. 유정충선장의 의로운 정신을 마음에 새긴 것을 바탕으로 사소한 일상 안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해보고 감사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수혜기관은 2011년과 같은 위스타트이지만 2011년에 리더역할을 하던 아이들은 이미 중학교에 진학하였고 프로그램 내용도 달라서 새로운 설렘으로 시작하였다.

스토리텔링시간, 노래 패러디하기에서 처음에 못하겠다던 몇몇 아이들은 다소 장난스런 마음으로 '비행기' 등 경쾌한 리듬의 곡을 선정하여 패러디하



였다. 패러디한 곡을 서로 불러보던 아이들은 즐거운 분위기의 곡에 자신들의 노랫말이 어울리지 않는다면 스스로 선곡을 해나가는 적극성을 보였다. 협동화를 그릴 때는 주제 선정하기, 밀그림 그리기 등에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참여하였다. 역할 나눔에도 서로 같은 역할을 하고 싶을 때면 각자가 서로 잘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디지털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의 보급으로 그 사용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매체인 사진을 활용한 교육은 이번에 진행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수업이었다. 감사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자신의 마음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자신들의 삶을 풍성하게 가꾸는 일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하였고, 아이들이 유정충선장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사진 활용 교육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담아 설득력 있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사진 활용 교육은 아이들에게 쓸 내용을 마련해 주고 새로운 의사소통이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휴대폰 문자매세지 상황에도 자신의 느낌을 정리하는 성찰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자신을 추스르고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갖기도 했다.

아이들이 ‘사진’을 활용하는 것은 오래되었지만 제대로 사진을 읽어내는 것에는 익숙하지 못하다. 단순히 사진을 보고 떠오르는 내용을 바탕으로 쓰기만 했을 뿐이다. “사진은 카메라가 만들지만 사진의 마음은 사람이 만든다.”는 말처럼 ‘사진’은 사진을 찍는 사람의 의도와 관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진행 요소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사진 관찰 후 사진 읽기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아이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자신의 관점으로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내용 생성 과정을 한 번 경험한 후 글을 쓸 때 내용 생성과정을 두 번째로 경험하게 되면 글쓰기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고, 사진 찍을 때를 떠올리며 내용을 생성할 수 있어 활발한 글쓰기 활동을 유도할 수 있었다. 또한 스스로 사진을 촬영하고 글을 쓰며 창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 아이들은 자신의 다양한 관점에 따라 다양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하나의 피사체에서도 다양한 시각을 만들 수 있겠지만 피사체가 지닌 다양한 느낌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통해 창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

촬영 장소 별로 두 차시를 배정하여 앞 차시는 아이들이 사진을 촬영하는 시간으로, 뒤 차시는 교실에서 찍어 온 사진 중에서 선정하여 글쓰기가 이루어졌다. 사진 활용 교육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직접 쓸 내용과 부딪힘으로써 몸과 마음으로 쓰기에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이다. 아이들은 복합의 사소통 매체가 활성화된 상황에 사진의 다양한 의미를 읽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시간을 통하여 소통의 방법을 익히고 살아있는 쓰기 체험을 하게 되었다.

유정충 선장이 선원들을 위해 끝까지 침몰하는 배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도 남을 배려하는 생활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남을 위한 배려의 시간으로 ‘꼬인손풀기’ 게임을 하며 다른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자리잡아야하는지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였다. 평소에 자신의 모습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이 담겨있는지를 관찰하고 자신을 성찰해 보고, 다른 친구들의 어떤 모습을 칭찬해 줄 수 있는지 발표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에는 사진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를 아이들 스스로 판단하게 함으로써 사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의식적인 포즈가 아니라 위스타트 마당에서 자전거 타기 놀이나 부메랑 던지기 등 자연스런 모습을 담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자연스런 모습을 촬영하는데 서로 양보하고 협동하였다.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를 있게 하는 고마운 일들이 많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우리는 고마움을 갖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고 살 때가 많다. 일상의 잔잔한 일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신체의 일부인 ‘손’이 하는 다양한 일들을 발표하는 시간. 아이들은 손과 관련된 자료를 서로 탐색하고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사고 활동을 통해 아이디어를 생성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여러 명이 손동을 모아 파도치는 모습을 표현하거나 사랑을 베푸는 손, 핸드폰 게임하는 손, 꿈을 이어가는 손 등 다양한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유정충 선장의 하나호 조난 당시 파도치는 모습을 여러 명이 손을 모아 표현하였으나 사진에는 파도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 아쉬워하면서도 뜻을 되새기는 경험에 의의를 두었다. 다양한 손의 모습에 제각각 다른 제목을 붙여보기도 하면서 다시 한 번 손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늘 친숙하지만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한 일들에도 감사함을 표현하며

즐거워하였다.

바다에 나가서 사진을 촬영하던 날, 아이들은 팀별로 바다에서 노래 부르기, 물수제비 뜨기, 모래에 그림그리기 등을 하며 소중한 추억 만들기를 하였다. 파도가 밀려간 모래에 글을 쓰고, 그 글이 파도에 씻기기도 하는 순간 아쉬움에 탄성을 자아내며 서로를 껴안고 보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다. 다른 친구들은 그런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촬영을 하였다. 아이들이 의도하지 않은 사진이 나와도 아이들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내용생성 과정을 한 번 경험한 것에 의미를 두었다. 아이들이 쓰기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도록 한다. 아이들이 바다에서 찍은 사진을 보며, 자신과 친구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자연스럽게 그 당시의 느낌과 생각들을 적어나갔다.

아이들은 사진 활용 교육을 실시한 후 쓰기에 대한 흥미가 생겼거나 자신감이 생겼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사진에 대한 의미를 처음 사진을 읽어낸 결과물을 보면 단어나 단답형 등으로 진술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장력이 향상됨을 보였다. 물론 아이들은 자신의 글에 유정충 선장의 배려와 희생 정신을 바탕으로 한 마음들을 진솔하게 표현하였다.

타일벽화 시간, 아이들은 자신이 그린 그림이 타일에 옮겨져 벽화로 꾸며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타일 벽화의 특징에 맞게 글을 좌우가 바뀌게 쓰는 것을 어려워하여 여러 번 수정하고서야 제대로 그리게 되었고, 잘못 그리는 아이들을 서로 도와주기도 하였다. 타일벽화는 원래 위스타트 한 벽면에 붙여 완성할 계획이었으나 같은 건물의 다른 벽면에도 조화롭게 붙이기 위해 붙이는 작업만은 내년을 기약하게 되었다. 아이들은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내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제 발표회를 앞두고 사회자를 선출하는 시간. 처음에는 머뭇거리고 망설이던 아이들까지도 서로 하겠다는 의욕을 보였고, 또 선출한 다음에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이런 작은 체험들이 아이들의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고 가꾸는 길임을 확신한다. 그러기에 새로운 설렘을 기대하며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다린다.

뮤지컬로 만드는 '유정충 선장'

야단법석 방과후아카데미의 뮤지컬

노래와 연기,
스토리텔링으로 유정충 선장의
긴박했던 순간을 표현하는
뮤지컬을 만들어 보았어요.





교육프로그램

교육주제	내용
소개와 관계형성 유정충 선장 이해하기	방과후아카데미 학생들과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즐거운 관계형성의 시간을 만든다. 유정충선장의 DVD를 통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짐
뮤지컬 장면 만들고 몸동작 익히기	뮤지컬 장면을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보고 뮤지컬에 필요한 몸동작, 발스텝 정지동작 등을 배운다.
극본 읽고 무대동작으로 표현하기	연습극본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동작으로 표현하면서 무대에서 시연한다.
향유자들과 친밀감형성	경직된 분위기를 활성화하기위해 즐거운 게임으로 분위기전환
발성, 균무연습 극본 만들고 대사연습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뮤지컬극본을 만들고 인물 표현과 대사 연습
동작연습	대사를 바탕으로 동작연습 순간정지동작 집중연습
삽입곡 연습 및 극 속에서 노래 표현하기	극에 삽입되는 두개의 노래를 연습하고 파트별 노래연습을 함
최종 연습	최종 연습

사진으로 보는 교육프로그램



소개와 관계형성 유정충선장이해하기



뮤지컬에 필요한 표정 노래 행동 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정충선장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DVD를 시청합니다.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뮤지컬 장면 만들고 몸동작 익히기



대장몸풀기게임-정확하게 따라 해야 하는데 쑥스러워서 대충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몸으로 형상을 만들어 표현해 보는 아크로바틱입니다.
학생들이 표현한것은 배입니다.



여덟글자로 두줄을 만들어 상황을 설명해야합니다.



극본 읽고 무대동작으로 표현하기



오늘은 동작과 몸짓을 첨가 해서 대본을 읽어봅니다.



친구가 읽는 대사가 잘 전달 되는지 집중합니다.



행동과 말을 구분하는 수업입니다. 말을 할때는 몸을 움직이지 않고 몸을 움직일때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향유자들과 친밀감 형성 발성, 군무연습



샐러드게임입니다. 같은 과일인 사람들은 자리를 재빨리 옮겨 앉습니다.



소리의 섞임 속에서 자기팀의 노래를 유지하는 수업입니다.



수건돌리기 게임으로 관심과 민첩한 행동을 기릅니다.

사진으로 보는 교육프로그램



극본 만들고 대사연습



태풍으로 배가 뒤집힙니다.



선장님 같이가요~



역할을 정해서 연습을 해보자



동작연습



갈매기도 정지 동작을
해야합니다



극의 전달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정지동작 수업입니다.



태풍이 온다는 보고를
선장님께 합니다



삽입곡 연습 및 극 속에서 노래 표현하기



각 파트별 노래를 연습합니다.



다함께 힘차게 불러봅니다.



솔로파트인 호진이가 힘을
내서 시작부분을 엽니다.



최종연습



마음으로 그리는세상
발박자에 맞추어 경쾌하게



무릎을 끌어 장중한
느낌을 줍니다.



박자를 맞추어서 크게
부르는 거야

뮤지컬로 만드는 '유정충 선장'

방과후 아카데미 모니터링

방과후 아카데미는 지난해 북청사자를 모티브로 한 연극으로 안동탈춤페스티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올해는 그때의 자신감으로 뮤지컬에 도전했죠. 그런데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어요. 뮤지컬이라는 장르에 대한 생소함과 두려움이 아이들을 힘들게 했죠. 하지만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무대에 작품을 올린 아이들. 그 이야기 속으로 go go!

– 김정민 –





1회차

교육목표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학생들과 관계형성을 맺는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본 프로그램의 취지와 목적, 전체 커리큘럼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단한 게임을 통해 학생들을 소개하며 관계형성을 맺었다. 처음 시간이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학생들 모두 자기를 소개하는 것을 어색해한다. 샐러드 게임을 통해 분위기는 나아졌지만 경직된 분위기가 쉬 변하지 않는다. 무대에 올릴 뮤지컬이라는 설명에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수업단상 첫 시간 관계형성을 맺는 시간이 좋았다.

프로그램의 목적과 취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도 학생들이 차후 진행될 프로그램에 참여할 동기를 만들어 주었다.





2회차

교육목표 뮤지컬에 필요한 여러 사항들 생각해보기, 올바른 발성을 통해
뮤지컬에 적합한 자세 교정, 상황인지와 집중력 고조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다양한 방법의 발성을 통해 소리를 열어주는 수업과 거울놀이를 통해서
상대방의 행동을 정확하고 바르게 따라하는 수업을 통해 집중력을 키우는
것이 이번 차시의 방향이다. 아직은 소극적인 학생들이 많다. 강사님의 적극
적인 수업개입에도 반응이 미비하다. 하지만 수업 중간 중간 밝게 웃으며 따
라오는 학생들도 많은 편이라서 수업이 대체적으로 무난히 진행되는 편이다.
학생들 스스로도 집중을 안 하고 소극적이며 장난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
하고 있으므로 중간 중간 환기시키는 작업을 통해 수업태도에 조금씩 변화
가 생긴다고 여겨진다.

수업단상 세 시간의 강의 일정에서 1강은 1.2학년 합반 수업, 2강은 1학년,
3강은 2학년과의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1강 시간에서 함께 했던
활동들이 2, 3강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어지는 점이 효과적으로
보인다. 아쉬운 점은 활동에 앞서 활동의 목적을 먼저 설명해주시
면 학생들이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도
학년 수업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면을 보인다.





3회차

교육목표 유정충 선장 DVD를 시청하며 이해를 돋는다. 게임을 통해 발성연습을 한다. 유정충 선장 극본을 읽어보며 정확한 전달력을 기른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유정충 선장DVD를 보고나서 궁금한 점과 질문사항을 통해 이해를 돋는 시간을 가졌다. ‘목소리를 뚫어라’ 게임을 통해 크고 정확한 소리 내는 연습을 하고 극본을 읽을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직접 읽어보며 체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DVD를 시청할 때 집중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 관심 없이 졸거나 다른 행동을 하는 학생들도 보인다. 시청 후 궁금한 점을 물어 볼 때 다양한 질문이 나왔다. 목소리를 뚫어라 게임에서는 수줍어하던 학생들이 소리를 크게 지르기 시작했다. 팀별 게임이라 이기고 싶은 마음에 소리가 많이 커졌다. 2학년 극본 읽는 시간에서는 정확한 발음으로 읽는 학생들이 적었다. 작은 목소리로 부정확하게 읽어서 내용을 알아듣고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수업단상 DVD시청 후 학생들의 시청 태도를 통해서 경청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다. 듣기의 중요성에 대해 학생들도 공감하는 모습이다. 목소리를 뚫어라 게임은 학생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어서 좋았다. 팀별 게임을 통해 소리를 크게 하되 정확하게 하는 연습은 뮤지컬에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게임에 앞서 게임의 목적을 알려주신 점 또한 학생들에게 적극성을 끌어 냈다고 생각한다.



4회차

교육목표 뮤지컬에 필요한 다양한 음꼴을 익혀본다. 뮤지컬에 필요한 장면을 만들어 보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8글자로 표현해본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여러 음꼴을 통해 직접 만든 장면을 표현해보고 발표도 하였다. 모둠작업 이므로 협동을 통해 장면을 만들고 창의적인 생각을 토대로 배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보면서 선원들의 생활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활동에 앞서 모둠을 나누는데 남학생 여학생의 유별이 심해서 모둠결성이 오래 걸렸다. 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에는 함께하는 작업임에도 협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간이 추가로 주어지고 먼저 생각을 말로 하는 작업을 통해서 장면들이 만들어졌다. 먼저 완성한 팀에 가산점이 부여된다고 하니 적극적인 모둠이 생겼다. 발표할 때 완성한 조, 미완성 조, 목소리만 큰 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조, 자신 없는 조, 얼버무리는 조, 다양한 모습을 보였다.

수업단상 학생들이 무언가를 창작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즐거운 작업이라기보다는 무조건 만들어야한다는 부담감이 커보였다. 앞서 시간처럼 왜 이 작업을 하는 지에 대한 설명과 목적이 좀 더 자세히 전달되었으면 하고 생각되어졌다. 발표할 때는 2학년보다 1학년이 더 정확하고 진지하게 발표하였다. 가사작업과 연습과정도 1학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였다.



5회차

교육목표 뮤지컬에 필요한 활동성과 적극성을 높이자 뮤지컬에 필요한 다양한 몸동작 익히기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교육생들 모두 커다란 원을 만들고 신나는 음악에 맞추어 돌아가면서 자기 자신만의 동작을 만들고 타교육생들은 그 동작을 정확하고 자세히 따라하면서 집중력을 높인다. 고양이 쥐게임을 통해 재빠른 상황변화 인지와 몸의 민첩성을 키운다. ‘대장 몸풀기’ 게임을 할 때는 자기 순서가 왔을 때 어색해하고 쑥스러워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비슷한 동작을 자제시켰음에도 새로운 동작이나 재미있는 동작이 나오기보다는 쉽고 비슷한 동작이 많이 나왔다. ‘고양이 쥐’ 게임을 할 때는 보다 게임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서인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도 지치지 않고 즐겁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게임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로 인해 게임이 중지 되었을 때는 서로 알려주기도 하였다.

수업단상 뮤지컬이 관객을 향해 무언가를 보여주는 작업이라는 것을 끊임 없이 학생들에게 인지 시킨다. 활동에 들어가기에 앞서 활동의 목적과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좋았다. 활동이 끝나고서도 앞선 활동의 필요성을 다시 인지시키는 작업이 학생들에게는 목적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지난 차시보다 게임을 통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아쉬운 점은 사춘기라서 그런지 아직도 남녀유별이 심하고 쑥스러운 모습이 많이 보였다는 것이다.





6회차

교육목표 뮤지컬에 필요한 춤동작을 위해 발 스텝과 손동작을 익히다.
정지동작(스톱모션)을 익혀서 무대에서 활용한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발 스텝을 익히기 위해 박자연습을 하면서 손동작도 함께 익히다 협동력과 순발력을 테스트하는 시간을 통해서 원의 협동심을 고취시키고 민첩함을 기른다. 정지동작을 익히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연습을 해보고 상황에 맞는 설정을 빠른 시간 내에 표현해본다. 시작에 앞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이제는 좀 더 여유로움이 느껴진다. 강사와 학생들 간의 신뢰가 충분히 형성된 느낌이다. 뮤지컬에서 필요한 춤동작을 취해 발 스텝과 손동작을 연습하는데 잘하는 학생도 있는 반면 스텝이 많이 꾼이는 학생도 있다. 덕분에 웃으면서 화기애애하게 진행이 되었다. 협동력을 시험하는 과제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자기 것을 먼저 내놓은 모습을 보이고 달성했을 때 기분좋아함을 표현하였다. 동작을 만드는 작업에서도 아직은 몇몇 학생들 주도로 만들어지는 것이 보인다.

수업단상 강사님께서 스트레칭 시간에 유머러스하게 잘 진행시켜서 학생들의 분위기가 편안해 짐을 느낀다. 협동력과 순발력을 테스트하는 시간에는 게임을 자세하게 여러 번 설명해 주셨다. 또한 활동 후 목적을 정확히 제시해 주어 학생들이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깊이 인지했다고 본다. 학생들의 팀 활동이 아직은 몇몇 학생들의 의견이 주로 반영되는 것이 아쉬웠다. 성격상 수줍어 하는 학생들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로 팀 간의 경쟁 때 문인지 상대팀의 활동을 정확히 바라보는 시각보다 단점만 보려는 점이 보인다.



7회차

교육목표 극본을 크고 분명하고 천천히 읽으며 정확하게 전달한다.
극본을 무대에서 읽어보며 현장감을 익힌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극본의 지문과 대사를 여러 번 읽어보면서 현장감을 느끼게 된다. 직접 무대에서 극본을 읽어보면서 고쳐야 할 점을 함께하는 팀원들과 느껴보고 고쳐본다. 처음에는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학생들이 많았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제법 역할에 맞추어 읽으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이 생겼다. 재미도 느끼는지 신나게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불확실한 발음으로 전달성이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다. 무대에서 극본을 읽을 때는 좀 더 긴장하며 진지해지는 것 같다.

수업단상 극본을 먼저 읽어주시면서 방향성을 제시해주었다. 처음 읽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 국어책 읽듯이 읽는 친구들이 많아서 여러 번 읽어보게 하고 역할에 따라 반복해보게 하는 활동이 효과적이라 생각되었다. 무대에서 극본읽기가 끝나면 대사와 지문에 관한 피드백이 이루어졌고, 무대에서 불필요한 몸동작에 대한 조언(시선 처리, 움직임의 최소화, 손이 어색함)을 하였다. 한 주 한 주 진행될 때마다 아주 작은 변화들을 느낀다. 아직도 몇몇 친구들은 겉으로 불만 섞인 표정을 보이지만 강사님께서 이끄시는대로 열심히들 걸음을 내딛는다. 이번 주 극본읽기는 학생들에게 뮤지컬을 좀 더 체감해 볼 수 있었던 기회라 여겨진다. 아직은 작은 발걸음이지만 학생들의 작은 발걸음이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지 자못 기대가 된다.



8회차

교육목표 지난 시간에 이어 대본읽기를 구체화한다.

동작과 몸짓을 첨가하여 더욱 실감나는 대본읽기를 한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동작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고 현장감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문을 유의해서 극본을 읽는다. 지난 시간에 이은 두 번째 극본읽기 시간이라서인지 학생들은 좀 더 익숙하게 대본을 읽었다. 대본을 읽을 때 자세가 바르지 않은 학생들이 많아서, 발성이 충분하지 않음을 지도한 후, 자세에 대해 신경을 쓰는 학생들이 눈에 띄었다. 각 조별로 동작이나 추임새를 나름대로 넣어서 연습할 때는 모두들 재미있는지 조금은 들뜬 기분으로 연습을 하는 모습이었다.

수업단상 각 조별로 충분히 연습시간을 준 후 시연을 해보았다. 각 조별로 평가시간을 가지고 잘된 점과 부족한 점을 즉시 피드백해준 것이 학생들에게는 좋은 평가 시간이었다고 느껴졌다.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무대에서의 어색함 때문에 표현의 방법의 차이가 학생들마다 있었으며 대본을 읽을 때 좀 더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회를 거듭할수록 학생들의 긍정적인 표현이 늘어났고, 조금씩 즐기는 학생들도 많아졌다.



9회차

교육목표 행동과 대사를 분리하는 연습을 한다.
무대에서 지켜야 하는 동작들을 숙지한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대사를 할 때는 동작을 멈추고 동작을 할 때는 대사를 멈추는 연습을 통해서 무대에서의 전달력을 향상시키는 연습을 했다. 자리에 서서 가만히 있는 연습을 하였는데 정지동작을 의외로 모두 어려워한다. 잠시 동안의 정적을 힘겨워하는 학생들이 많고 동작이 금방 흐트러지고 산만해졌다. 모두들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한 사람이 중앙에 나와 꿈과 사는 곳을 이야기하면 모두 수긍하고 인정하는 활동에서는 좀 더 크고 명확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수업단상 몇몇 학생들을 제외하면 아직도 활동 시에 쑥스러움을 많이 탄다.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꿈을 이야기 할 때는 의외로 꿈을 이야기하는 학생이 없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어색함도 있어서였겠지만 뮤지컬 작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좀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10회차

교육목표 함께 작업하는 학생들의 유대감을 증진시킨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명상과 호흡을 통해 안정감을 느낀다. 수건돌리기 게임을 통해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학생 상호간의 친밀감을 증대시켜 차후 수업에 좋은 영향을 끼치게 한다. 교육진행이 점점 어려워 지쳐 보이는 학생들이 많이 보였다. 명상과 호흡을 통해서 학생들이 조금은 안정되게 보였다. 수업진행이 어려운 듯 보여 강사님께서 게임을 제안하여 수건돌리기 게임을 하였는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학생들이 많았다. 반면 게임에서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학생들도 여전히 눈에 띈다.

수업단상 게임으로 진행된 수업이지만 집중력과 순발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수건이 누구에게 떨어지는지, 잡히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는 학생들을 보면서 즐거웠다. 뮤지컬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고 있지만 굳이 제작을 해야만 할까 싶은 생각도 든다.





11회차

교육목표 셀러드게임을 통해서 학생들 간의 친밀감을 형성한다.
소리의 섞임 속에서 자기만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도록 한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지난 시간에 이어 셀러드 게임을 하면서 학생들 간의 친밀감이 편하게 형성되었다. 하지만 게임에 몰입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 게임에 있어서도 걸드는 느낌의 학생들이 있다. 또한 쉽게 알고 있는 동요를 여러 파트로 부르면서도 자기 소리를 놓치지 않는 연습을 통해서 뮤지컬에 필요한 발성을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소리 섞여 노래하는 시간에는 상별제 때문인지 최선을 다해 부르는 학생들이 많았다.

수업단상 셀러드게임을 함께 할 때 1학년과 2학년이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강사님께서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 열심히 함께하는 모습이 좋았다. 1학년 발성수업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이 2학년 수업보다는 더 눈에 띄었는데 발성법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아서인지 소리만 크게 지르는 점을 상기시켜 준 점이 효과적 이었다.



12회차

교육목표 뮤지컬에 필요한 연기, 노래, 춤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 발성연습과 군무연습을 한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부르기 쉬운 노래를 이용하여 다함께 부르는 뼈창을 연습하고 손동작과 발동작을 함께하는 군무를 연습하였다. 발성연습을 하면서 아직도 소리가 크게 나오지 않는 학생들이 여럿 눈에 띠었다. 노래를 부르며 손동작과 발동작을 함께 할 때 즐겁게 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마지못해 따라가는 학생들도 많아서 어색한 시간도 있었다.

수업단상 좀 더 신나고 재미있는 노래로 연습하려고 했지만 의외로 노래를 선곡하기가 쉽지 않았다. 동요인 산토끼와 송아지 가사를 바꾸어 부르며 집중력을 유도한 점이 좋았다. 다만 노래의 선곡이 다양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는데 학생들이 다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전무한 것이 의외였다.





13회차

교육목표

유정충 문화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토론한다.
유정충 문화제의 극본을 학생들의 생각을 이끌어 내어 함께 만드는 작업으로 이끈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유정충 선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알리는 기회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뮤지컬임을 상기시키고, 뮤지컬에 쓰일 극본을 참여하는 학생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이끄는 작업을 통해 과정이 담긴 극본을 만들었다. 그런데 학생들이 둘러앉아 여러 친구들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에 쑥스러움을 많이 떴다. 처음에는 비슷한 생각들이 많았으나 차츰 자신감을 회복한 학생들을 위주로 제법 창의적인 생각들이 많이 나왔다. 그것을 토대로 극본을 만드는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서인지 후반부로 갈수록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등장인물을 정하고 스톱모션을 이용하여 대사를 준비하는 속제를 내주었다.

수업단상

극본을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 개개인의 생각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 좋았다. 자기의견을 말하는 것이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 많이 보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각하려는 노력이 보여 긍정적이었다.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등장인물을 정하고 등장인물의 감정선을 생각해보는 작업도 극본 만들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14회차

교육목표 극본 속의 인물을 정하여 역할을 연습한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각자의 역할을 정해서 거울을 보며 연습하고, 인물의 동선과 대사를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에 내주었던 과제를 해온 교육생들이 거의 없었다. 강사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도 반응이 없는 편이다. 그나마 규호가 보조강사님에게 열심히 배우려는 모습을 보였고 재성이도 세밀하게 표현해보려는 노력을 보였다. 대사와 행동을 개개인 피드백을 받고는 조금 나아진 모습이다.

수업단상 교육생들이 인물 연습을 안 해 온 것이 아쉬웠다. 본격적으로 인물을 표현하는 것이 어색한지 적극적이지 못했다. 강사님께서 개인에게 역할에서 가감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해 주는 점이 좋았다.





15회차

교육목표 1장면과 2장면의 배경에서 인물의 대사를 연습한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대사를 동선을 따라 행동과 함께 자세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시간. 막과 막사이의 동선 연습에 치중했다. 학생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른 대사연기를 해내려는 모습이 보였다. 장면과 대사가 제법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기를 한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 같았다. 분위기가 전 체로 즐거웠고 친구의 연기를 보면서 웃기도 하였다. 유현이는 제법 감정을 타고 연기하는 듯이 보였고 여행객을 맡은 혜선, 혜지, 나영이는 여전히 어색하고 목소리가 개미만하다. 해내고 싶은데 연기의 느낌을 몰라 답답해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수업단상 총 다섯 장면 중 두개의 장면을 집중 연습하였다. 한 장면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해보게 함으로써 어색함을 없애는 작업이 좋았다. 다른 수업 때 보다는 강사님께서 유머러스하게 그 과정을 잘 이끌어 나가셨다. 다만 구석에서 잡담을 하면서 분위기를 방해하는 학생들을 환기시킬 때 연기중인 학생들의 흐름이 깨져서 아쉬웠다.



16회차

교육목표 1장면과 2장면의 대사를 좀 더 확장하고 정확하게 연습한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각 장면의 시연 시간이 부족하여 좀 더 대사를 다양하게 만들어 보았다. 대사가 부족한 학생들의 생각을 반영하여 여러 장면을 만들어 보고 선택하여 대사와 행동을 함께 연습하였다. 1학년 학생들이 연기를 하면서 아직도 어색해한다. 갈매기 역을 맡은 유성이가 등장할 때 웃음이 많이 나왔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즐겁고 재미있는 분위기이지만 막상 극에 들어가면 어색해하는 점은 여전하다. 태풍을 맞는 장면에서 2학년들이 디테일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반면 심각한 장면에서도 대부분 웃으면서 해서 즐겁게 임하는 모습과 극의 분위기를 구분하지 못한다.

수업단상 전체적으로 목소리가 너무 작다. 지난 차시 장면을 또 복습하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전달력이 부족해보였다. 강사님께서 적절한 시간에 피드백을 해주고 다시 했을 때 개선된 점이 많이 보였다.





17회차

교육목표 스톱모션(정지동작)을 정확하게 표현한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출항장면과 작업장면의 대사와 행동을 표현함에 있어 정지동작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아 극이 산만하게 보이는 경향이 강하여 정지동작을 중점적으로 연습하였다. 연습을 할 때 사진 찍는 것을 남 여학생 모두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규호는 정지동작 중에도 사진 찍히는 것이 싫어 고개를 숙이다가 강사님에게 혼이 났다. 관광객 역의 우혁이와 기범이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대사가 전혀 안들렸다. 혜지와 소희는 시선처리가 어색한지 계속 몸을 움직여서 부자연스러워보였다. 2장면 등장에서 배가 흔들리는 장면에서 연진이가 너무 환하게 웃으며 흔들리는 모습을 표현해서 어색해보였다.

수업단상 결석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역할의 공백이 생긴다. 그래서인지 전 수업과 연결이 매끄럽지 않다. 대사 순서와 대사자체를 잊어버리는 학생들이 아직도 많다. 강사님께서 연기지도를 하고나서 전체 피드백 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장역의 학생이 나오지 않아 교체되었는데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었다. 출항장면과 작업장면의 대사가 정리되어 나와서 학생들 대사 연기에 도움을 주었다.

18회차

교육목표 순간정지 동작을 정확히 숙지하고 대사에 감정을 실어서 실감나게 표현한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1교시 합동수업시간에는 다양한 형태로 순간정지 동작을 자연스럽게 표현 할 수 있게 여러 번 반복을 통하여 연습하였고, 2. 3교시 학년수업에서는 감정을 담아서 실감나게 대사를 표현해보고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나타내는 연습을 하였다. 30명의 학습자 중에서 유달리 아픈 학생이 많아서 7명의 학생들은 수업을 참관하였다. 몸을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에서 호문이가 상당히 힘들어 하였고 형철이는 정지동작으로 가만히 있는 연습이 안되어 몸의 움직임이 유난히 많았다. 형철이가 대사를 하지 않아서 덩달아 아연이와 수영이도 머뭇거려서 어색한 분위기가 되었다. 형철이와 유현이는 할 때마다 순서나 대사가 바뀌어서 다른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환절기라서 학생들이 많이 아파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운되었다.

수업단상 극의 메시지를 뚜렷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순간 정지동작이 힘들어서 1교시는 정지동작을 익히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11자로 서서 무릎을 구부려보고 팔을 흔들다가, 양 팔을 흔들다가, 온몸을 흔들다가, 원을 그려보며 걷다가, 통통 뛰어가며 걷다가, 온 사방을 자유롭게 걷다가, 순간 정지하는 동작을 하였는데 횟수가 거듭될수록 정지동작이 자연스럽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손을 흔들거나 몸을 움직이거나 얼굴표정을 정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좀 더 연습이 필요하다. 2.3교시 시간에는 감정처리에 대해서 피드백을 학생마다 해주었다. 국어책 읽듯이 대사 처리하는 것이 많아서 어색한 장면이 많은데 개인별로 감정을 다시 잡아보는 시간을 가진 것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보였다.



19회차

교육목표 극의 현장감을 살릴 수 있는 두개의 곡을 익힌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생명의 항해’ 와 ‘마음으로 그리는 세상’ 두개의 곡을 불러보고 전체적인 극의 배치와 노래의 연결까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봄으로써 현장감을 살리고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혜지의 마지막 대사를 신호로 노래가 시작되는데 혜지가 부끄러워 얼굴을 가리면서 하였다. 몇 번 시도에 비교적 무난하게 노래가 시작되었다. ‘생명의 항해’ 는 어려운 듯 느껴졌는지 힘들다고 했지만 금새 익히면서 따라 불렀다. 멜로디와 함께 하는 수업이라 그런지 학생들도 활기차고 신나게 따라 불렀다. 1학년 수영이가 적극적으로 몸짓도 표현하면서 수업을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수업단상 음악 담당이신 김민정 선생님의 복식호흡과 발성연습으로 수업이 시작되었다. 소리가 작은 학생들이 많아서 소리를 얹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주셨고 피아노와 함께 하는 수업이라 좀 더 신나게 진행되었다. ‘생명의 항해’ 는 함께 부르면서 극의 후반부를 강중하게 이끄는 분위기였고 ‘마음으로 그리는 세상’ 은 각 파트를 정하여 가사전달이 분명하게 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파트를 나눌 때 소리를 적절하게 분배하기 위해 조를 다시 엮는 작업이 있었는데 효율적이었다. 1학년들이 2학년보다는 적극적으로 노래를 익히려는 모습이 보였다.



20회차

교육목표 각 파트별 연습을 통해 곡의 표현력을 증대시킨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지난 시간 곡 연습을 통해 멜로디를 익힌 것을 이번 시간에는 파트를 나누어 좀 더 자세히 연습을 하였다. 코러스도 연습하면서 자연스럽게 극과 어울릴 수 있게 여러 번 노래를 불렀다. 가만히 서서 부르는 것보다 발박자에 맞추어 노래할 때 신나하는 모습이 보였다. 1학년 학생들이 지난 시간 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칭찬을 받았다.

수업단상 지난 시간에 나눈 파트별 연습을 하였다. ‘마음에 그리는 세상’의 경우 발 박자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경쾌하게 보였다. 전체적으로 목소리가 작은 것이 노래 가사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다. 호진이의 솔로 부분을 만들었는데 학생들이 노래 들어가는 신호가 되어 연결이 부드러워 보였다.





21회차

교육목표 극과 노래 부분을 연결하여 극을 완성한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이전시간 연습한 노래를 극과 자연스럽게 연결해보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였다. 또한 공연 예정이던 극장이 바뀌면서 극 도입부분인 등장부분을 다시 연습하였다. 민성이가 오랜만에 주호와 정현이와 호흡을 맞추는데 어색하고 부끄러운지 많이 머뭇대는 모습이다. 그런 와중에 민성이의 작은 농담이 주호의 웃음을 멈추게 하지 않아 연습에 지장을 줄 정도였다. 지난시간 동안 노래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를 숙지한 학생들은 손에 껌을 정도여서 여전히 악보를 보고 부른다. 현덕이는 가사를 모두 외웠다고 다가와서 이야기하고 지영이도 오랜만에 연습에 참가하였다.

수업단상 지난 시간 연습한 노래와 극을 연결하는 작업이었다. 2학년 수업에서 각 파트별 소리가 너무 작고 분위기도 다운되어 마지막 수업십여 분 동안 함께 이제까지의 작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이 작품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마 가지고 있지만 열정이 부족한 것이 안타까웠다. 2·3교시에는 학생들이 모였지만 1교시에는 많은 아이들이 학교사정으로 많이 빠져서 극에 구멍이 많이 생겼다. 작품이 과연 완성될까, 의구심이 들었다.



22회차

교육목표 공연 완성을 위한 발성, 입·퇴장 연습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발성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마음으로 그리는 세상과 생명의 항해 전주부 분이 바뀌고 전체 분위기도 오르간연주에서 오보에 연주로 바뀌어서 연습을 다시 맞추었다. 입장연습과 퇴장연습을 하면서 극의 순서와 노래부분의 도입을 맞추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였다. 1교시에는 전체적으로 산만하였다. 특히 2학년 하림, 지영, 한나, 노을, 경진이는 모여 있으면서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전반부에서 웅얼거리면서 대사를 하는 아연이, 손동작이 부자연스러웠던 수영이가 후반부에는 많이 좋아졌다. 음정이 많이 불안한 노을, 지영, 한나도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이려하였다.

수업단상 이전까지는 전체적으로 소리가 작아서 극의 분위기가 반감되는 경향이 강했었다. 오늘 김청익 강사님의 독려로 학생들의 목소리가 많이 커졌다. 확실히 예전보다 자신감 있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 하림이, 윤래는 적극적으로 크게 불렀고 학생들도 분위기를 느끼는지 전체적으로 자신감 있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학생들의 빈자리가 많아서 1교시 수업에는 자연스럽지 못한 극의 전개가 아쉬웠다.





23회차

교육목표 장면연습을 여러 번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정확한 피드백을 통해 서 부족한 부분을 고친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연습에도 불구하고 대사가 실감나게 전달되지 않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들리지 않는 점이 많아서 학생 개개인에게 피드백을 하고 다시 반복해서 장면연습을 하였다. 아직도 어색하고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특히 관광객 역할을 하는 학생들의 시선처리가 관객을 향하지 않고 바닥을 보고 해서 대사가 정확히 들리지가 않았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어서 즐거운 공동 작업이 힘들다는 인상을 준다.

수업단상 장면연습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짧은 대사조차 외우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 연습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자기의 몸짓과 대사를 모니터링 해보았는데 학생들이 관객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차후 학습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2학년 학생들의 공백이 많아서 몇몇 배역의 자리이동이 있었고 대사도 다시 만들었다. 아무래도 학생들의 공백이 연습에 많은 누수를 가져오는 점이 있다. 또한 피드백을 받을 때만 잠시 좋아지다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점이 아쉽다.

24회차

교육목표 작품 완성을 위한 배역연습을 충실히 한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이번 주에 있을 캠프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참가 인원을 선정하였다. 1교시에는 1,2학년이 함께 마지막 장면과 생명의 항해를 집중적으로 연습하였고 2·3교시에는 각 학년의 장면연습과 마음으로 그리는 세상을 연습하였다. 2학년 하람이, 노을, 예희가 아파서 수업을 전체적으로 앓아서 진행하였는데 아픈 영향인지 목소리도 작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운되었다. 반면 1학년은 성섭이와 유현이를 비롯해서 정현이와 현덕이도 큰소리로 노래를 불러서 분위기가 좋았다.

수업단상 정현이가 공백이었던 갈매기 역할, 새로 들어온 수경이가 성섭이가 했던 할머니 역할, 성섭이가 공백이었던 낚시꾼 역할로 다시 연습을 하였는데 이전 역할 보다 잘 어울렸다, 특히 성섭이가 노래를 부르면서 등장하는 도입부분이 활기차게 느껴져서 다른 학생들도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았다.





25회차

교육목표 발성연습을 완성한다.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발성연습을 통해 노래를 정확히 표현하고 극 속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반복 연습한다. 2학년 학생 중에서 몇몇을 제외하면 적극적으로 극을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느낌이 적다. 특히 일부 학생들은 무대에 서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빼지고 싶어했다.

수업단상 결원이 많아서 극을 연습하는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고 틈이 많이 생겨서인지 극의 흐름이 자연스럽지가 못하다. 2학년 여학생들은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아서 노래가 표현되지 않는다. 연습을 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고 하면 집중을 할 타이밍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에 더 신경을 쓰고 가리느라 극을 놓치기도 한다. 장면을 다시 구성하고 인원을 다시 배치해야하는 심각한 고민을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정도로 부담감이 크게 느껴지는 상황이다.



26회차

교육목표 극과 노래의 자연스러운 연결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곡의 빠르기가 달라진 생명의 항해를 연습하고 극과 노래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연습을 통해 극의 완성도를 높였다. 방과후 아카데미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하여 수업을 진행해서인지 조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선장 역할의 지훈이가 그동안 흔들렸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역에 충실하자, 다른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적응한다.

수업단상 전체 연습을 통해 부족함이 보이는 장면과 인물들의 개인 연습시간을 가졌다. 급한 느낌을 화를 내는 느낌으로 하는 아연이와, 늦게 투입되어서 많이 어색해하는 수경이. 평소 목소리와 다르게 극을 할 때 너무 소극적인 혜지와 소희. 뒤늦게 역할이 바뀐 승현이와 호준이. 태풍을 다급히 전해야하는 정우가 특히 개별 연습을 많이 하였고,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27회차

교육목표 대본 구성의 적극 참여

교육내용 및 향유자 반응

장면구성에 변화를 주어 향유자들이 적극적으로 극에 임할 수 있도록 하며 향유자들 스스로 대본을 다시 구성하게 함으로써 참여 동기를 높이는 작업을 했다. 지영이가 시나리오 작업을 해왔고 연습을 하면서 노을이, 하림이, 예희가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보였다. 지훈이는 제법 긴 선장님의 독백을 숙지하고 왔다. 남학생들의 장면 구성에서 성섭이, 정현이, 민성이가 제법 자연스럽게 즐거운 작업장을 표현하였고 현덕이는 감정표현을 잘 하였다. 기범이는 대사가 너무 빨라서 느리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였고 규호, 주호, 민성이은 대사 연습을 여러 번 하면서 많이 나아진 모습이다.

수업단상 2학년 여학생의 경우 도입장면을 스스로 시나리오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연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뮤지컬의 의도를 나타내는 장면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동기부여가 높아졌다. 1학년 남학생들과 2학년 남학생들이 배안에서의 작업장을 함께 만들면서 자연스러운 장면이 만들어졌고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 전체적으로 지난주보다 활기찬 분위기였고, 노래 소리도 많이 커져서 극과 균형을 이루는 느낌을 주었다.

뮤지컬로 만드는 ‘유정충 선장’

방과후 아카데미 친구들과 함께하는 뮤지컬 나들이

문화예술교육 강사 김 정 민

스물여덟 번의 만남!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방과후아카데미학생들과 함께한 시간이었다. 그간 다른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한 작업은 많았지만 철저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학생들을 바라보게 된 기회는 마음먹고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다.

초등학생을 벗어나 중학생 교복을 입은 1학년 학생들과 제법 선배 티가 나는 2학년 학생들이 서른 여 명. 조금은 어색하게 인사를 주고받았다. 학생들과 함께 할 프로그램은 “뮤지컬로 만드는 유정충선장님의 이야기”로 이미 이 지역에서는 희생정신으로 유명한 분이시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기에 속초 문화원에서 유정충문화제를 기획하고 그 일환으로 방과후아카데미 학생들은 뮤지컬을 함께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된 것이다.

이제까지 뮤지컬이라곤 2000년 무렵 대학로에서 보았던 가스펠이 전부였던 나는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지는 뮤지컬이 어떤 모습일까 기대보다는 궁금함이 더 컸다.

사실 학생들과 소통하기도 전에 무작정 자신들의 사진을 찍고 일거수일투족을 적는 사람이 사춘기의 학생들은 결코 편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강사님들과 학생들의 노력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멋지게 담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이제는 학생들과 장난도 치면서 가벼운 농담도 하고 진지한 눈빛도



주고 받을 수 있는 시간이 흘렀지만, 처음엔 셔터 누르는 것도 조심스럽고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어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지 모니터링초보자의 어설픈 행보가 스스로 버겁기도 하였다.

마지막 수업을 카메라에 담고 나서 지나간 사진들을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천천히 돌려보았다. 이제는 방과후아카데미를 떠난 어진이, 태민이, 유성이, 동건이, 금지도 보이고 전학을 간 호문이가 어색하게 서있는 사진도 눈에 띤다. 그리고 보니 봄부터 겨울까지 학생들 머리모양도 많이 바뀌었고 훌쩍 자란 느낌이다. 늘 같은 모습의 학생들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새삼 돌아켜보는 사진 속의 학생들은 지금보다는 앳된 모습이다.

지난 여러 달 동안 학생들은 참 많은 것을 하였다. 호흡, 발성을 배우고, 스트레칭으로 몸을 유연하게 하고, 여러 게임을 통해 집중력과 협동력을 익히고, 대본을 읽고 무대표현을 해보고, 정지동작을 배우고, 학생들 스스로 대본을 구성하기위해 생각 여는 연습을 하고, 군무를 배웠다. 강사님들은 생각만큼 따라 와주지 않는 학생들로 인해 속상해하고 상처 받기도 했고, 학생들은 생애 처음 도전하는 뮤지컬을 익히기 위해 어설픈 날개 짓을 해보면서 힘들어했다. 성격과 표현력이 각기 다른 삼십여 명의 학생들은 한창 사춘기의 터널을 지나는 예민함과 세상에 대한 방관적인 시선이 있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왜 뮤지컬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기도 하였다. 그러한 과정들이 가끔 없이 뮤지컬의 장면으로 나타나면서 학생들은 조금은 뒤늦게 자신들의 작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정도 겪었다.

줄탁동시(茁啄同時), 뮤지컬 만드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어느 순간 떠올랐던 고사성어다. 병아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 안에서 껍질을 쪼아내고 어미 닭이 그 소리를 듣고 바깥에서 껍질을 쪼아 줌으로써 두 존재의 힘이 합쳐질 때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뜻이라 한다. 학생들도 뮤지컬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알을 깨기 위한 노력을 보였고, 강사님들 또한 알을 깨는데 보탬이 되고자 동분서주 하셨다. 결실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학생들과 함께 한 과정의 결과로써 작은 무대가 만들어져 학생들에게 기대하지 않은 성취감이 선물로 주어진다면 그동안 함께 보냈던 시간들은 분명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이 만들어가는

유정충 문화제 시즌2 기획워크숍

청소년들에게 묻다.

청소년들의 활동을 통해 유정충 선장의 책임감과 의무 그리고
희생정신을 되짚어 보는 기회.

청소년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문화축제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숨겨진 능력을 깨우는 시간의 단초 마련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집중'과 열정의 시간 마련



유정충 문화제 시즌 2 기획워크숍

1박2일 Workshop 일정

● 첫째 날 | 20012.11. 10(토)

14:00	속초시립박물관 청소년 집결
14:00 ~ 14:10	입소식
14:10 ~ 15:00	유정충 선장 / 워크숍 일정 소개
15:20 ~ 16:30	팀 스토리
16:35 ~ 17:45	팀 빌딩
18:00 ~ 19:00	저녁
19:00 ~ 20:30	팀 회의
20:30 ~ 21:00	팀 회의 결과발표
21:00 ~	숙소배정 및 자유시간

● 둘째 날 | 2012. 11. 11(일)

08:00 ~ 09:00	아침식사
09:00 ~ 10:00	결과발표 및 퇴소식



주요 프로젝트

● 초청계획

유정충문화제 시즌2 초청장 만들기 / 대상선정

● 홍보계획

길거리 홍보 현수막 제작, 발표회장 입구 현수막 만들기

● 전시계획

발표회장 전시물 제작 / 각 센터별 활동 결과물 홍보

● 진행MC계획

행사 당일 발표회 진행 / 청소년 2명 공동진행
위스타트 진행



세부 프로그램

● 팀 스토리

각 센터 소개 프로그램, 팀 인원 소개, 발표회 공연에 대한 소개,
팀 리더 소개, 모둠선생님 인터뷰

● 팀 빌딩

팀웍을 다지는 시간, 팀별 과제 수행을 통해 문제수행능력 향상

● 팀 회의

팀별 프로젝트 수행 및 결과 발표

● 진행MC

발표회 때. 공연프로그램 MC, 각 센터에서 진행 시키는 프로그램 이해,
Mc시나리오 작성



행복한 프로젝트 – 홍보

행복한홈스쿨 학생들의 흥보이야기

- 현수막의 기능을 설명합니다.
- 현수막에 들어 갈 내용을 파악 합니다.
- 현수막 타이틀을 디자인 합니다.
- 현수막 형태로 종이를 오려 전지 위에 붙이고 디자인을 합니다.
- 그림이 들어가도 좋습니다. 단 관련 된 그림이어야 합니다.
- 자신감 있는 학생을 발표자로 선, 발표 연습을 합니다.



위스타트 프로젝트 – 초청

위스타트 학생들의 초청장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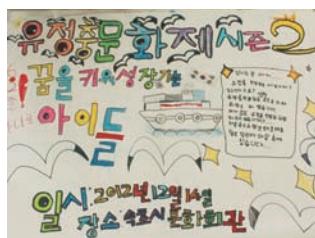
- 초청장을 받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대상자별로 초청장 내용을 적어 봅니다.
- 물론 초청장에 들어갈 형식을 참고 해야겠죠.
- 어떠한 방식을 통해 초청장을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적어 봅니다.
- 최종 초청장 만들기 작업은 인쇄, 손글씨, 프린트 등 다양한 출력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 전지위에 플로우 차트 형식으로 작업 과정을 설명합니다.
- 각 센터에서 필요한 초청장 수량도 파악해 주세요
- 초청계획을 발표자가 발표할 수 있도록 연습 부탁드립니다.



방과후아카데미 프로젝트 – 전시

방과 후 아카데미 학생들의
전시를 만들기

- 가장 노련하고 섬세한 작업입니다.
- 발표회 장소는 썰렁함. 엘리베이터가 전시 공간입니다.
- 각 센터별 활동사진으로 도배를 할 것입니다.
- 각 센터에 활동사진과 함께 사진설명을 포함한 파일을 요구하세요.
- 포장박스를 활용하여 작업을 할 것입니다.
- 파일 내용의 설명을 손 글씨로 작성 전시 합니다.
- 초청자, 방문자에게 청소년 활동을 소개하는 자리임을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회 당일 사전에 투입되어 발표회 1시간 전에 작업을 완료합니다.



사진으로 만나는 기획워크숍

청소년들이 만들어가는 유정충 문화제 시즌 2



워크숍에서 중요한 것은 팀빌딩. 조금씩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유정충 문화제 초대문구 만들기. 통통배를 표현한 행복한 홈스쿨 아이들

개골개골 개구리, 위스타트 아이들은 표현력에 중점을 둔 작품을 만들었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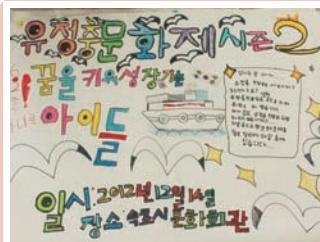


방과 후 아카데미 학생들의 전시계획. 유정충 선장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기획워크숍을 진행하기 전에 강사 선생님과 자원봉사 학생들의 사전 미팅이 개최되었어요.

요란법석 유정충 문화제 기획워크샵. 처음에는 서먹했던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나니 하나가 되네요.

사진으로 만나는 기획워크숍



팀빌딩을 하며 각 팀에 주어진 미션을 해결해 가면서 유정충 문화제를 저절로 만들 수 있어요.

아이들이 만든 작품을 홍보 현수막과 배경막으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당선 작품이 나왔네요.

조심 조심, 서로의 마음을 이어붙이며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고 있어요.



팀별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다른 팀에게 발표를 해요. 서로의 생각이 확장되는 순간이죠.

다른 팀보다 우리가 더 잘하자. 시끄럽게 떠들던 아이들은 팀별 미션을 수행하며 점점 진지하고 주체적으로 변하네요.

올 한해 속초문화원의 문화 예술교육 때마다 나타나서 학생들을 돌보주었던 자원봉사 학생들.

결과발표회

유정충문화제 시즌2

2012. 12. 15(토)/두드림 소극장

공연내용

방과후 아카데미 : 총체극 '하나호의 마지막 항해'

위스타트 : 수업활동 영상 및 중창 공연

행복한홈스쿨 : 그림자극 '바다와 사람', 오카리나 공연

초청공연 : 갯마당 사물놀이

6개월의 대장정이 마무리되는 순간, 우리들이 만난 유정충 선장의 다양한 모습을 문화예술로 표현하는 '유정충 문화제 시즌 2'.

아이들은 난생처음 만나는 소극장에서 오전부터 계속 연습을 했다. 좁은 공간, 빠거덕거리는 무대, 그러나 관객의 숨소리마저 들리는 이 공간에서 그동안의 결과물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묘한 긴장감을 주었다.

이윽고 약속된 시간 세시가 되었다. 120석의 좌석이 꽉 찬 소극장, 위스타트 학생의 사회로 시작한 유정충 문화제,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본다.



사진으로 보는 유정충문화제 시즌 2



세상에 하나뿐인 전시회



소극장 입구에 걸린 깜짝 전시회. 선생님들이 아침 일찍부터 사진출력하고 글씨 쓰고 붙이셨답니다.

다른 친구들은 어떤 활동을 했을까? 각 센터의 수업모습을 보면 부러워하거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짜잔, 유정충문화제를 축하해 주기 위하여 이렇게 많은 화환이...^^
그건 아니고요, 행사 전날 열린 소극장 개막식의 축하화환이랍니다.



두근두근 리허설



엘리베이터 갤러리, 유정충 문화제는 엘리베이터문이 열리면서 바로 시작한답니다.

심각하게 의논하는 스텝들. 지역에서 처음 갖는 소극장 공연. 영상을 보여주려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네요.

아자아자 잘하자.



텅빈 사다리가 이제 나 좀 치워줘라고 말하는 듯. 아침부터 공연준비를 했지만 아직 준비가 완벽하지 않아요.

방송 인터뷰하는
쌍둥이 형제들.

자기가 서야하는 곳을 잘
보세요. 행복한 아이들이
공연 위치를 살펴보고 있어요.



위스타트 아이들이 ‘희생과 배려라는 단어’를 공부하고 노래가사를 만들었어요. 오늘 멋진 노래공연을 보여준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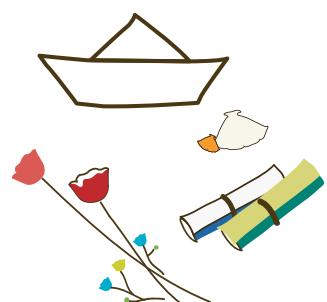
행복한 아이들의 오카리나
공연 리허설을 지켜보는
아이들.

행사 감독인 김청익 선생님의
신신당부. 소극장이 좁은만큼
등퇴장이 중요했다.



오늘의 메인 사회자와 함께
원고를 다듬는 오성란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번 더 원고를
읽고 연습하는 사회자.





우리가 준비한 유정충 문화제, 잘 보고 있나요?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들이
공연하는
'하나호의 마지막 항해'



선장님의 마지막 대사를 외칠
때는 객석에서도 눈물을 훌쩍
이는 짠한 감동이 일었다는
후문.



노래와 사진, 미술을 통해
유정충 선장님을 만난
위스타트 학생들의 수업영상



선장님의 정신을 예쁜
노랫말과 수화로 표현하는
위스타트 학생들.



오성란 선생님이 지난
수업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네요.



행복한 홈스쿨 아이들이 만든
그림자극 '바다와 사람' .
바다를 생활의 터전으로 살아
가는 우리 이웃의 모습을 그렸다.



행복한 홈스쿨 아이들의
오페라나 공연, 신나는 크리스
마스 캐롤 메들리로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정성스레 실력을 발휘하는
모습. 잘 들리나요?



김정민 선생님의 수업 설명.
각 프로그램의 담당 선생님이
수업설명을 해주셨다.



오늘의 초대손님들이 유정충 문화제를 본 소감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네요. 다들 놀라셨고 감동이었다고 전합니다.

갯마당의 초청공연

방과후 아카데미 기념촬영



위스타트 학생들의 기념촬영

행복한 홈스쿨 기념촬영

이 프로그램을 위해 애써주신
강사 선생님들.
1년동안 수고하셨어요.



대본1 방과후아카데미 총체극

1. 강당 한가운데서...

유정충수업 중간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둥그렇게 앉아서 수업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는데.... (딩동댕동~~~~~)

현석선생님 : 자 애들아 15분 휴식.

예희 : 진짜요?

하림 : 아 짜증나 유정충이 뭐야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걸 우리가 배워서

머하나——

지영 : 내말이 유정충이 뭔데 우리보고 뮤지컬을 하라는거야ㅠㅠ

하림 : 충? 벌레이름도 아니고

노을 : 난 조금 이해되던데,, 그 분 우리동네 분이셨거든 그 액스포쪽에

있는 동상이 바로 유정충 선장님이야

예희 : 아 몰라 나 진짜 뮤지컬도 하기 싫어

한나 : 나도, 연기도 하고 노래도 해야되잖아

예희 : 근데 안하면 선생님들이 우릴 가만히 냅두겠니?

연진 : 당연히 아니지 근데 난 혼나기 싫으니까 할래

노을 : 내가 자세히 말해줄까? 우리아빠가 신문기사 오려둔거 내가 많이
봤거든

하림 : 신문에도 나왔어? 얼마나 심각 하길래...

노을 : 신문에만 나왔겠어? 전국적으로 뉴스도 방영되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렸었는데

지영 : 아 그럼 그때 우리 아빠가 보여준게 그거였나? 나도 본 것 같은데..

연진 : 그렇게 중요한 일이면 한번 들어보고 싶기도 한데

하림 : 그럼 노을아 네가 한번 말해봐

노을 : 간단한 것만 말하면 1990년에 유정충이라는 선장님이 선원을 데리고
바다에 갔다가 배사고를 당한일이야

연진 : 오늘 아침뉴스에서도 여수인가? 배사고 났던데 배사고는 흔한 일
아니야?? 그게 왜 중요한 일인데?

지영 : 선장님이 선원들을 다 살리고 혼자 돌아가셨거든

예희 : 허어~어~얼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노을 : 나머지 분들은 다 살았고 유정충선장님은 돌아가셨어...

지영 : 그런데 지금은 잊혀져 가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를 만드는
거래

한나 : 노을아 지영아 나중에 그 신문 스크랩 좀 보여주라~

노을, 지영 : 알겠어 ㅋㅋ

하림 : 그럼 그 선장님은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던거야?

한나 : 아까전에 수업 안들었냐 오징어배라고 했잖아

연진 : 그런 얘기도 있었나,,,

하림 : 하여튼 유정충선장님 가족들은 지금 살아계셔??

지영 : 응 당연하지 장례식도 같이 치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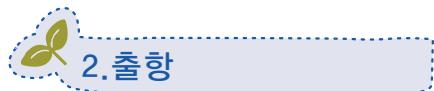
예희 : 우리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한나 : 이제 시간다됐다 오늘 수업 열심히 듣자

모두 : 그래그래

현석선생님 : 얘들아 다시 모이자, 자~아 배 환송하는 장면부터 할테니까
잘해보자~!

대본1 방과후아카데미 총체극



낚시꾼1 : 고기를 잡으려 산으로 갈까나~

낚시꾼2 : (버럭)에이 바다로 가야지

낚시꾼1 : 하하하 여기서 잡을까?

낚시꾼2 : 저쪽에서 잡자

낚시꾼1 : 많이 잡을 것 있나?

낚시꾼2 : 글쎄 잡아봐야 알지~

아들 : 좀 빨리오라고!!

딸 : 아 좀 천천히가.

아들 : 아빠 배 출항 시간 얼마 안남았어 빨리와.

할머니 : 아이고 허리야~

슈.아 : 할매 아들이 배타고 나간다면서요.

할머니 : 그하게 말이네.. 꿈자리가 안좋은데 나간다 그러네....

슈.아 : 그래요? 그래도 고기 많이 잡아 오겠죠 제가 짐 들어드릴께요

저기 배가 보이네요 가시죠

행인1 : 어 혜선아 어디가?

행인2 : 슈퍼 갔다 집에 가려고

행인3 : 너희들은 어디 가는데?

행인4 : 우리는 자다가 너무 더워서 잠깐 나왔어.

행인1.3 : 그래, 잘가~



그림자극 배경화면

행인2.4 : 잘가~

행인1.3 : 어 또 만났네

행인2.4 : 그러게 우리 인연인가봐

실업자 : 악~~ 에휴..... 아~ 면접에서 또 떨어지고.. 역시 문제는 살이겠죠?
화 그냥 배나 타버려~?

관광객1 : 와 속초오니 정말 시원하고 좋지?

관광객2 : 그러게 참 시원하고 좋다.

관광객1 : (손가락으로 가르키며) 어! 저기 배가 떠나나봐.

관광객2 : 저기로 가보자

갈매기 : 끼룩~끼룩~끼룩~ 새우깡주세요 끼룩~끼룩~
왜요 갈매기가 말하는거 처음봐요?
끼룩~ 음~ 새우깡 냄새다.

할·친 : 민수형가 배타고 나간다면서

할아버지 : 그러게 얼마나 번다고 배까지 타는지 몰라.

관광객3 : 여기서 사면 오징어가 쌀까?

관광객4 : 그래도 항구인데 시장보다 싸겠지~

관광객3 : 그렇겠지

관광객4 : 어! 갈매기다~

빼~~앙~~~~



그림자극 배경화면

대본1 방과후아카데미 총체극

아들 : 아빠 잘 갔다와

딸 : 내 선물사와 아빠~

할머니 : 이놈아 조심히 갔다와.

슈퍼아저씨 : 많이 잡아와서 외상값 갚아.

행인 : 저 불빛은 뭐지? 오징어배 불빛이잖아? 저사람 오늘 배나가나 보네

아 맞다 우리 삼촌도 저배 타는데...

할아버지친구 :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가야해

할아버지 : 그러게... 저놈이 내말을 들어 쳐 먹어야지..

실업자 : 아~~ 배나 탈까?

낚시꾼1,2 : 월척이다~

관광객1,2 : 와 저게 오징어잡는 배 인가봐.

관광객3,4 : 저게 오징어배래~

(마지막 대사 후 “마음으로 그리는 세상” 1학년 1절 부른 후 퇴장과 동시에
2학년 입장 2절 부름. 노래가 끝난 후 뱃고등 소리와 함께 연기시작.)

3. 작업

빼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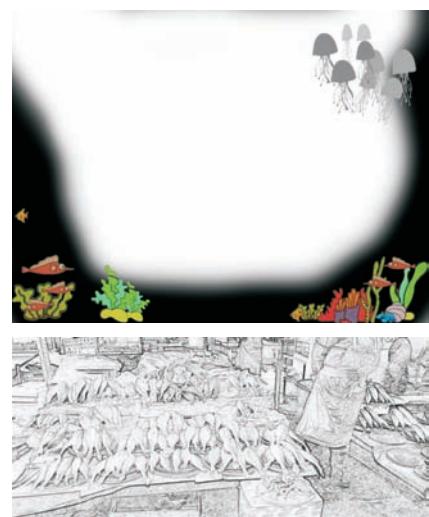
먹사 : 뭐야 야식이야??

음만사 : 어..어...어...에이 혼자 먹을려고 했는데.. 한입 먹어볼래?

먹사 : 어!! 스~~읍 익 뭐야이거 맛이 왜이래 이거 사람이 먹는거 맞아?

음만사 : 왜? 맛없어?

그림자극 배경화면



먹사 : 응 맛없어 니가 한번 먹어봐!!

음만사 : 스~~읍~ 켓 이게 맛이 왜이러나——;; 이씨,,,

먹사: 잘좀만들어봐——^ 아..배야 나 일단 화장실좀....

정현 : 음~~ 음~~ (콧노래)

성섭 : 아이고 마지막 줄이네 나는 끝이다~~ 다했다~~!!

유현 : 다했어? 다했으면 옆에와서 노래나 불러

성섭 : 그럴까? 저푸른 초원위에~

정현,유현 : 짜짜라 짜라 짜라

성섭 : 그림같은 집을 짓고~

정현,유현 : 짜짜라 짜라 짜라

성섭 :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백년 살고싶네~~

유현 : 같이 살 님은 있나?

성섭 : 이..씨.. 넌! 있나!?

유현 : 있을것 갔나!!!! ——

정현 : 으이그 님도 없는것들이..둘이 똑같다 똑같어!! 쫓쫓

넌 하던일이나 하고, 넌 부르던 노래나 마저 불러!!

그림자극 배경화면



통하사 : 네 여기는 하나호입니다.

(깜놀) 뭐라고! 태풍이 오고 있다고! 네 일단 알겠습니다.

(긴박한 목소리로) 선장님!!!

기범 : 너희 어머님이 아프시다며?

현덕 : 그래도 어쩔수 없잖아 나와야지..

우혁 : 너희 어머니가 꿈자리가 안좋다고 소문이 자자 하던데..

현덕 : 잔소리 그만하고 일이나해!



대본1 방과후아카데미 총체극

기범 : 이 짜식은 걱정을 해줘도 난리야 ——

우혁 : 걱정이 되니까 그렇겠지 그냥 일이나하자

점하사 : 바람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흠...안전장치는 이상 없고.

어 선장실에 누가 가네...

주호 : 너 대학교 합격했다면서?

민성 : 어

주호 : 근데 왜 대학교 안가??

민성 : 그냥... 배가 좋아서

규호 : 민수야 우린 친구잖아 어려워 하지말고 말해봐..

민성 : 아니야 진짜 배 일이 좋아서 그래

주호 : 짜식 자존심이 밥 먹여 주냐

규호 :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

민성 : 야 오징어 올라온다 어서 일하자....

청하사 : (노래 부르며 청소를 하다 선장님과 통신을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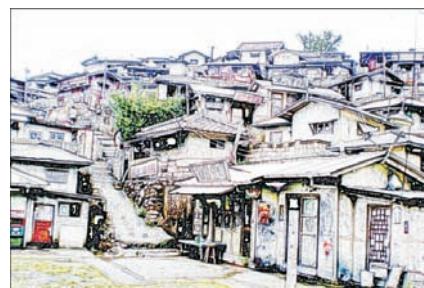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데... 무슨일있나?

(홍얼~홍얼~노래를 하다가 다시 선장실쪽을보며)

에이 괜찮겠지....

(마지막대사 후 각자 일하는모습)

그림자극 배경화면



4. 조난

(천둥번개 효과음과 암전)

1. 놀람 = 으악!~

(천둥번개 효과음과 암전)

2. 이동 = 태풍이다.

(천둥번개 효과음과 암전)

3. 이동 = 선장님.

(천둥번개 효과음과 암전)

4. 탈출 = 안돼!!.....

(끝남과 동시에 “생명의 항해” 음악. 음악시작과 동시에 여학생들 입장
1절후 중간 간주 부분에 선장님의 독백)

선장 : 하나호 선장으로 첫 출항한 며칠 후에 폭풍주의보가 내렸고, 나는
울릉도 도동항으로 피항 명령을 내렸다. 그날 저녁 식사시간에
이 배는 다른 배보다 키가 무거운 것이 중심이 위로 잡힌 것 같으니
무거운짐은 반드시 배 밑바닥에 선적하라고 갑판장에게 주의를
주었다. 태풍이 몰아친 후 거의 반쯤 기울어진 갑판위에서 사무장이
나에게 손짓하며 선원들이 탄 구명뗏목 쪽으로 뛰어 내렸고,
마지막으로 기관장이 뗏목에 간신히 기어 오르는걸 보았다.
그리고 내가 무전실로 들어가자 배는 거꾸로 뒤집히며 물속을 사라져
버렸다.

(“생명의 항해 2절” 후 마무리)

그림자극 배경화면



행복한 흄스쿨 그림자극 ‘바다와 해녀’ 대본

1. 강당 한가운데서...

등장인물 해설 : 준성 해녀 : 유진 해녀 아들 : 광윤 상인 : 수연
동네 할머니 : 효주 문어 : 자빈 해파리 : 유민
상어 : 자경 돌고래 : 지혁 오징어 : 자빈 해마 : 국형
전복1 : 준섭 전복2 : 현진 미역 : 연희
불가사리 : 지혁 마을 사람들1 : 현진 마을사람들 2 : 지영

장면 1 : 산동네 저녁. 작은집

해설 : 어느 마을에 해녀일을 하는 엄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해녀아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백수’ 였습니다.

해녀아들 : 사람들은 나를 ‘백수’ 라고 부르지만 ...그래도 나름 나도 잘
하는 게 있지...카톡문자 질....영화감상....게임...아무튼 난
백수가 아니라 ‘생활의 고수’ 라고나 할까.....

해설 : 생활의 고수가 될 정도로 해녀의 아들은 오랜 시간을 ‘백수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돈이 생기면 PC방과 여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옷을 살 궁리만 하였답니다.

해녀 : 아이고 이놈아 집구석에 있었으면 집이나 치우고 있지 라면 먹은 것
그대로 쌓아두고이불도 좀 개 놓고 그러지..... 백수라는 것
자랑할 일 있냐!

해녀아들 : 이제 치우려고 그랬어요.

해녀 : 아니 넌 집에서 매일 먹고 놀을거여?

해녀아들 : 엄마는 상관마세요!...제일은 제가 알아서 할꺼니까요!



해녀 :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지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해녀아들 : 아~ 정말 엄마하고는 말이 안 통해...으유..으유으유...으유

해녀 : 돈도 안 벌면서 어디서 큰소리야!!!

해녀아들 : 엄마는 내 마음 알지도 못하면서...

해녀 : 니 마음?...돈만 주면 Pc방에 가 하루 종일 있질 않나....여자애들한테

잘 보이려고 걸만 번지르하게 꾸미고... 뭐? 니 마음...니가 날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는데....내가 니 마음을 어떻게 알아... 맨 날

노는 생각만 있지!

해녀아들 : 엄마는 다 알아야 하는 거 아녜요?.....

아이구 엄마랑은 말이 안 통해

해설 : 엄마와 말다툼을 한 아들은 그냥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할머니 : 고놈 지 엄마랑 한바탕 한 모양이구먼,,나이가 30이 다되는데

쓰쓰쓰...지 엄마 고생하는 것도 모르고...언제 철이들까나

해설 : 동네 감초 할머니가 찾아 오셨네요.

할머니 : 광철이 엄마...광철이 엄마...안에 있어?

해녀 : 아~ 네!

할머니 : 광철이 그놈하고 한바탕 한 모양이지....씩씩거리며 내려 가던데..

해녀 : 덩치는 산 만해 가지고 집에서 당구는 모습 보니까 울화통이 터져서

.....그런데 어쩐 일이세요?

할머니 : 아~ 시장 장씨네가 좀 보자고 하네...뭐 부탁할 일이 있나봐....

그런데 광철이 그놈 못됐구면...아주 못 됐어

해녀 : 지도 답답하겠죠.....

할머니 : 광철이 고놈 지가 답답하고 해도...내가 볼 때는 아주 못 됐어

해녀 : 아 할머니 말 전하셨으면 이제 그만 올라가시던지

내려가시든지 하세요..

행복한 흄스쿨 그림자극 ‘바다와 해녀’ 대본

장면 2 : 시장골목 / 생선가게

해설 : 아들은 간밤에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엄마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해녀 : 아들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상인 : 아니 왜 그래....무슨 일이 또 있어?

해녀 : 우리 아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돈을 벌지도 않으면서...

돈쓸 궁리나 하고, PC방에서 사니....너무 답답해

상인 : 그래...너무 걱정하지마. 다 때가 있겠지...우리 아들은 요즘 취직을 해서 용돈을 주더라고...호호호호..

해녀 : 우리 아들도 그랬으면 좋겠네....그런 날이 오려나...

할머니 : 흠... 광철이 엄마 광철이 어제 집에 들어왔나?

해녀 : 아뇨....

할머니 : 광철이 고놈 돈 생기니까 집에 안 들어 왔구먼...아주 못 됐어...

해녀 : 할머니~!!!!!

상인 : 광철이 엄마...자연산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복 같은거 따 올 수 있지?

해녀 : 돈이 돼야 물질을 하죠...돈 좀 될까?

상인 : 아 당연히 돈이 되고말고.

해녀 : 그럼 깊은 곳까지 들어 가봐야겠네.

상인 : 아유 요즘 사고가 많아서 걱정인데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는 마

해녀 : 에이 무슨 일이야 있겠어.

상인 : 그럼 물건은 우리 가게로 가져다주는 거지?

해녀 : 당연히 그래야지 값만 잘 쳐줘



장면 3 바다 속

해설 : 해녀엄마는 차가운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 생각에 마음 편하게 물질하려 들어가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해녀 : 오늘은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래서 그런가.....

눈에 잘 보이지가 않네....이것도 불가사리...저것도 불가사리....

온통 불가사리 뱉이네...저건 또 뭐야....술병이네.....

요즘 바다가 너무 지저분해 졌어.....

해설 : 몇 번 물질을 한 해녀엄마는 건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해녀 : 아 약속은 했는데 오늘은 돈 될만한 해산물들이 없네...

다른 곳으로 이동해봐야겠네...

장면 4 : 또 다른 바다 속

해설 : 이런 바다가 있었나요..아까하고는 다른 바다네요.

해마 : 불가사리....너 잘 만났다...팔씨름 다시 한 판 하자.

불가사리 : 야..야 이제 그만 좀 하자....맨 날 지는 주제에...

나 힘들어...그러니까...저기 저기 있는 문어랑 해

해마 : 왜 이제 겁나느냐?...쫄지마... 이제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는

기술을 멀치한테 배워왔다..자 덤벼라

불가사리 : 웃기는 소리 그만좀하고....

지난번에는 거북이한테 배웠다고 자랑하더니....

네가 이긴 걸로 할테니까...이제 그만 나 좀 내버려둬...

해마 : 자식 쫄았나?.....겁 먹지 말고...자 한 판 불자.

불가사리 : 제발 나 좀 그냥 내버려 둬....

해마 : 야...야... 불가사리 거기 안서....도망가기냐....야 불가사리...

미역 : 어 아줌마는 누구세요?

해녀 : 난 해녀야...빛깔이 연한 것을 보니 아직 새끼 미역이네

행복한 흄스쿨 그림자극 ‘바다와 해녀’ 대본

미역 : 해녀. 해녀. 해녀

문어 : 옆에 있는 아줌마는 누구셔?

미역 : 해녀. 해녀. 해녀..해녀 아줌마

문어 :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해녀 : 어머 너무 귀여운 새끼 문어네...난 해산물을 따러 왔단다.

전복1 : 윙...해녀?....해산물?.....비상비상. 해녀가 나타났다....

모두 숨어라!!!!

전복2 : 해녀?....왜 숨어야 해?....가르쳐줘...

전복1 : 넌 아직 그것도 모르냐...

우리는 잡히는 그 순간 끝이야 끝. 잘게 썰려서 초고추장 온몸에
두르고 인간들 입속에 쑥 들어가고, 쌀밥이라 같이 끓여져 죽이라는
것으로 환생해서 인간들에게 먹힌다구..바보야

전복2 : 아~~~ 왜 나만 모르고 있어지....같이가...

해설 : 새끼문어와 친해진 해녀엄마는 새끼문어가 가는 곳마다.

신기하게도 해산물들이 많았어요. 마치 새끼문어가 해산물 있는 곳을
말 해 주는 것 같았답니다.

그 때 바다에서 유명한 깡패 해파리가 나타 났어요.

해파리 : 어라 이 아줌마 좀 보게...내 허락도 없이 감히 이곳에서

오징어 : 혼내줘...독침 맛 좀 보여줘...더시는 이곳에 오지 못하게 해줘

문어 : 아...아.. 아줌마 어서 피...피..피해야 해요....성질 더러운

해파리가 왔어요....제네들에게 쏘이면 엄청 아파요...어서 피하세요

해마 : 해파리????....아 지독한 놈들... 여길 왜와....불가사리

너 오늘 운 좋은 줄 알아라...

해파리 : 어라!!! 이 아줌마는 온 몸을 고무로. 감쌌네.

그렇다고 포기할 내가 아니지....

해설 : 원래 해파리는 몸은 한천질이고 헤엄치는 힘이 약해 거의 조류에 따라 움직인답니다. 주로 플랑크톤을 먹지만 갑각류의 유생이나 어린 물고기를 먹기도 하고, 갓 가장자리에는 촉수가 늘어져 있고 그 표면에는 많은 자세포가 있는데, 그 속에 있는 독침으로 먹이를 쏘아서 잡아 먹는다고 합니다. 해녀엄마는 해녀를 피해 도망치기 시작 했어요

해마 : 아줌마... 그쪽 말고요...왼쪽으로요....!!!

문어 : 아줌마 힘 내세요...빨리요....빨리...

불가사리 : 아이고 저 놈들을...너무 멋있다...해파리 화이팅

해설 : 해녀엄마는 힘이 빠지기 시작 했습니다.

상어 : 어 물 색깔이 왜이래....저 놈들은....해파리...이것들이 여기까지 와서...놀고 있네....야! 해파리 너희들... 저리 안 가!!!!

해설 : 무시무시한 상어가 해파리 뼈에게로 돌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너무 지친 해녀엄마는 정신을 잃고 바다 속으로 점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문어 : 큰일 났어 아줌마가 바다에 가라앉아..누가 좀 도와줘...

나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 누가 좀 도와줘

해설 : 문어 혼자 힘으로 해녀엄마를 구하기에는 어렵도 없었답니다.

그때 돌고래가 나타났어요.

돌고래 : 문어야 비켜봐.. 아줌마 정신차리세요....웅차...웅차...웅차



행복한 흄스쿨 그림자극 ‘바다와 해녀’ 대본

장면 5 : 해녀엄마의 집

아들 : 아 엄마는 왜 안 들어오시는거야....나 때문에 화가 나셨나?

안되겠다...엄마를 찾으러 가야겠다. “

마을사람1 : 광철아 무슨 일이 있어??

아들 : 이 시간까지 엄마가 집에 안 계셔서...엄마 좀 찾아 보려고요

할머니 : 고놈 아주 못된 놈인 줄 알았었는데...착하구먼

상인 : 오늘 바닷속에 들어가서 뗏 좀 캐 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늘걸 보면 진짜 무슨 일이 생겼나?

아들 : 아이고 엄마~~~

마을사람2 : 아니 애 이렇게 시끄럽죠...무슨 일이 있나요?

마을사람1 : 광철이 엄마가 물질 나갔다가 아직 안 들어오셨네....

배를 타고 한 번 찾으러 가 봅시다.

아들 : 감사합니다.

할머니 : 나도 가 봐도 될까...늙은이인데

상인 : 그렇다면 나도 가봐야겠다

아들 : 모두 감사합니다.

마을사람1 : 저기 뭐가 있는데...

돌고래 : 안녕하세요...저는 돌고래입니다.

할머니 : 아니 뭐라 그러는거야....저게 뭐라고.....돌....탱이

아들 : 아뇨...돌고래요..

할머니 : 응 그래 돌탱이....근데 생긴 것이 꼭 돌고래 같아.

상인 : 돌고래야 혹시 이곳에서 해녀를 보았니?

돌고래 : 예..절 따라오세요

마을사람1 : 자 돌고래야 네가 좀 앞장서렴.

마을사람2 : 돌고래는 신통해..



돌고래 : 해녀가 저기 있네요

아들 : 아이고 어머니.....ㅠㅠㅠㅠㅠ

해녀엄마 : 광철아 엄마는 너도 못보고 죽는 줄 알았다.

마을사람1 : 아이고 다행이다. 광철이 이놈이 지 엄마 걱정을 읊마나 하는지

동네사람들 다 끌고 왔잖아요 ㅎㅎㅎㅎ

마을사람2 : 다 끌고 오긴....하긴.

민식이 할머니 오면 동네사람 다 온 거나 마찬가지지....

할머니 : 아들이 철든거지....

해녀엄마 : 우리 광철이가 철이 다 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상인 : 자 이제 집으로 어서가야죠...

상인 : 몸 좀 괜찮아졌어?...광철이는 뭐하고?

해녀엄마 : 아 많이 나아졌지... 광철이가 요즘 철이 들었는지 공무원
시험 본다고 도서관에 틀어 박혀 있어

상인 : 그래 이제 정신 차렸네. 애후 우리 아들놈은 다니던 회사가 망해서
집에서 놀고 있네그려. 가게 좀 봐 달라니까..냄새 난다고...

해녀엄마 : 그래도 자기네 아들은 똑똑하니까 금방 취직할 거야.

상인 : 헤헤..그러도 개가 똑똑하긴 하지...ㅎㅎㅎㅎ

아들 : 어머니 나 시험에 합격했어요~~~

할머니 : 아이고 경사났네....아들이 참 착혀

마을사람1 : 아 내가 한턱 쏘지....고기파티나 할까?

할머니 : 난 이가 없어서 못 씹는데.

고기말고 국물 있는 걸로 하면 안 될까 나?

상인 : 물이나 드세요.

모두 : ㅎㅎㅎㅎㅎㅋㅋㅋㅋㅋ

안녕하세요?
유장승 선장님!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속초시

주관 : 속초문화원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사업 보조금으로 제작